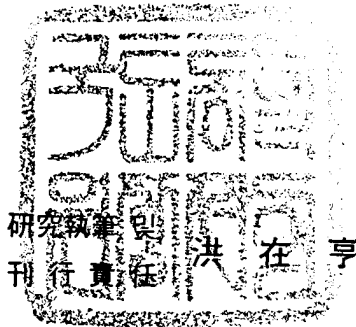


3255
30p.0911

本 研究는 南北韓比較事業計劃에 依拠한 自體 研究報告書이며, 收錄
된 内容은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韓社會文化現況比較



研究執筆 刊行責任 洪在亨 (調査研究室 事務官)

7/11

2
▶ 1985.11.10
" 1985.11.10
북한사회문화현황 211도
" 1985.11.10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目 次

1. 序 言.....	3
2. 社會化過程의 比較.....	5
가. 이데올로기의 統合機能.....	5
나. 部門別 社會化過程 比較.....	6
1) 北韓 社會化의 特性.....	8
2) 家庭과 社會化.....	11
3) 託兒所·幼稚園과 社會化.....	14
4) 學校와 社會化.....	18
5) 社會團體와 社會化.....	27
6) 大衆媒體와 社會化.....	30
3. 社會管理方式의 比較.....	34
가. 生活의 基本方式.....	34
나. 欲求管理.....	36
다. 餘暇管理.....	50
라. 社會生活의 類型과 方式.....	52
마. 文化藝術活動.....	60
4. 社會福祉管理의 比較.....	64
가. 保健醫療.....	64
나. 社會保障.....	75

5. 北韓의 社會問題	82
가. 社會的 逸脫行爲	82
나. 社會的 不條理	84
다. 社會相 풍자한 은어 만연	86
라. 社會問題的 內在的 要因	89
6. 結 論	91

1. 序 言

오랜 세월에 걸쳐 單一民族으로서 고도로 同質的인 文化와 傳統을 형성하고 이를 계승해 온 우리민족은 남북분단이래 對立的인 이데올로기와 社會制度를 採擇하게 되었다.

분단 38년이 경과한 오늘날의 南北韓社會는 각기 異質的인 文化를 형성했고 이에 따라 그러한 社會文化的 環境속에서 살아온 南北韓 住民의 社會的 性格과 生活方式이 또한 크게 대조적이다.

분단이래 北韓은 외부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는 閉鎖社會로 남아 있다. 이 「은둔왕국」의 全體主義는 그 철저성과 體係化가 완벽하여 北韓住民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統治權力에 의해 감시되고 管理되며 혹사되는 組織化된 集團안에서만 生存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世界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고 가장 엄격한 組織的 統制下에 있는 北韓社會가 어떠한 過程을 통하여 그렇게 되었는가를 밝혀야 하는 北韓社會研究는 確信을 얻기 어려운 作業중의 하나이다. 더군다나 比較論的인 眺望에서 問題에 접근하여야 한다는 方法論的인 難點과 그 대상이 다른아닌 한국과 北韓의 異質的 社會 體制라는 쉽지 않은 條件이 첨가되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作業이 要求되는 까닭은 오히려 現實 政策的 次元에서 적지 않은 誘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南北韓社會의 巨視的 比較研究는 體制對決 내지 競爭狀況에 있는 兩體制의 長短點을 露呈시킬 것이며, 이는 보다 長期的인 政策樹立에 準據로서 活用될 수 있다.

北韓은 韓國을 赤化하기 위해 6.25 동란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러 일으켰고 現在도 韓國의 平和的 統一努力에도 불구하고 대남 도발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감행하고자 하는 무력남침을 저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平和的으로 南北統一問題를 해결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삶의 方式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쪽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어디까지나 相對的인 觀點에서 北韓을 把握하고 韓國社會에 대한 자체 照明과 同時에 양체제가 지닌 強약점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北韓의 통치이데올로기가 社會의 각부분에 침투되어 어떻게 社會統속에 공헌했는가에 주목하면서, 南北韓間에 ①社會化過程, ②社會管理方式, ③社會福祉管理, ④社會逸脫등의 諸問題에 대해 多元的이고 複合的인 接近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問題를 규명함에 앞서 밝혀 둘 것은 南北韓社會의 比較尺度構成, 資料蒐集의 制約등 연구상의 基本적 制限조건으로 인하여 南北韓社會比較는 일부 상당한 推定과 主觀的 判斷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2. 社會化過程의 部門別 比較

가. 이데올로기의 統合機能

南北韓 社會體制은 전혀 異質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樹立되었을 뿐만 아니라 30여년 동안 全住民에게 각기 相反된 方向에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도록 이끌어 왔다.

분단직후 과도기의 南北韓社會는 각기 社會再編을 겪어야 했고 그 性格에 있어 北韓은 韓國에 比較할 수 없을 정도로 과격성을 보였다.

韓國은 自由民主主義 바탕위에 正립된 反共이데올로기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데올로기의 構造는 複合的이다. 韓國의 체제이념은 大衆의 自發性에 의거된 것이며 強制力에 의해서 支援되고 있지 않으므로 體制에의 支持를 産出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極大化시킬 수 있으나 全社會에 걸쳐서 強力하게 組織적으로 그 體係가 確立되어 있지 않다. 또한 民主主義 體制는 본질상 어떠한 政黨이나 集團에 의해서 政治理念의 注入을 위해 대중매체가 獨點될 수 없으므로 大衆에게 미치는 理念의 浸透度는 매우 완만하다.

한편 北韓의 이데올로기는 김일성과 그 일파에 의해 法과 道德을 이데올로기로 대체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이데올로기는 政治行爲에 등기를 부여하는 價値體係 혹은 지배자와 인민대중이 一般的으로 수락하고 있는 統治理念 이상의 것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획일적 閉鎖社會인 北韓에서는 하나의 統一된 主義나 이데올로기만 存在하고 이것과 다른 견해는 일체 禁止되어 있다. 이와 같이 唯一的 지도이념만이 存在하는 北韓은 철저한 政

治社會化 教育과 大衆媒體의 獨點에 의하여 全社會의 모든 下位體
係에 걸쳐 體系的으로 이데올로기에 의한 社會統合을 強力하게 推
進하고 있다. 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 모든 領域에 이데올로기 要
素가 미치지 않은 分野가 없으며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 까지 이
데올로기에 의한 統制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體系的 確立은 北韓體制로 하여금 全住民의 體
制에 대한 支持를 強制力에 의해서 極大化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體制에 대한 支持는 大衆의 自發的 同意에서 나
온 것이 아니므로 長期的인 觀點에서 보면 그 逆機能的인 結果가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으로 展望된다.

나. 部門別 社會化過程 比較

분단 38年이 경과한 오늘날의 南北韓社會는 각기 異質的인 文
化를 形成했고 이에 따라 그러한 社會文化的 環境속에서 살아온 南
北韓 住民, 특히 청소년들의 社會的 性格 또한 크게 對照的이다.

2次世界大戰이래 韓國은 東西冷戰體制속에서 美國·日本을 중심으
로한 高度消費社會의 影響을 계속 받아 왔으며, 특히 60年代 後
부터 急速한 社會經濟的 發展과 결부되어 西方世界가 우리나라 發
展의 모델이 되어왔다. 그런데 그러한 變動에 청소년층을 비롯한
社會成員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價値觀이나 生活樣式에서 個人的 利
己主義, 物質中心主義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서구 先進國에서
도 이 같은 부정적 社會風潮에 대처하는데 부심하고 있으며 韓國
에 있어서 이 問題 또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北韓을 위시한 共產主義國家들은 기존체제의 破壞위에 새로

은 體制를 구축한다는 發想에서 새로운 人間型을 창출하기 위해서 國家的 努力을 기울여 왔다. 北韓은 소위 「革命的 人間」을 創造하기 위하여 幼年期부터 家庭의 影響을 배제하면서 計劃되고 統制된 社會化過程을 통해서 全 住民 特히 청소년층을 共產主義的으로 세뇌·개조하여 「完全한 政治的 人間」으로 鑄造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北韓에 있어서의 社會化는 철저하게 政治的 社會化 (Political Socialization)로 一貫되어 있다.

社會化의 概念을 「人間으로 태어난 生物有機體가 精神心理的으로 성숙하여 社會가 기대하는 特定 行動類型을 獲得해 가는 過程」이라고 規定한다면, 南北韓에 있어서 대조적인 社會化過程은 특히 청소년층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제기시켜 준다.

첫째로, 南北分斷이 앞으로 상당기간 持續될 때 南北韓間에 異質化 現象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며, 둘째로 앞으로 예견되는 非敵性 共產國과의 交流는 韓國 靑少年들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상대적으로 弱화시킬 可能性이 크며, 마지막으로 統一問題가 상당기간이 지나서 해결된다고 가정하면, 6.25 戰爭에 대한 經驗이 없고 脫이데올로기의 思潮속에서 成長한 우리 靑少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그들이 民主資本主義體制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新념을 가지고 北韓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면서 우리體制를 高수하고 維持·發展시킬 수 있는 相對的 意志력과 能力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하는 問題를 檢討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즉, 南北韓의 社會化過程 比較研究는 6.25를 經驗하지 않은 우리 靑少年들이 統一에 관한 問題를 觀念과 實際行動이 과연 일치할 것인가에 대해 考究해 볼 기회를 提供해야만 할 것이다.

1)北韓 社會化의 特性

北韓에 있어서의 社會化는 政治的 社會化로 일관되어 있다. 政治社會化란 政治的 目的을 위해 人間을 社會化하는 過程을 말하며, 特定政治體制가 要求하는 社會的 性格을 形成하는 過程을 뜻한다. 어느 社會나 政治的 目的이 있는 것이고 보면 政治的 社會化는 民主主義社會에서도 存在한다. 그러나 民主主義社會에서는 그것이 社會化의 한 部分이고 副次的인 意義를 가지는 데 反하여 共產主義社會에서는 政治社會化가 社會化의 全過程에서 核心的 意義를 지니고 있다. 즉, 政治的 目的만이 크게 부각되어 그것이 全體社會의 目的으로 간주되고 政治體制를 담당·응호·維持해 나갈 수 있는 社會的 性格이 中心的 位置를 차지한다. 바꿔 말하면, 政治的 志向이나 態度가 社會的 性格의 中核이 되고 기타의 모든 性格의 特性이 周邊的인 것으로 밀려나고 個人的 特性 같은 것은 특히 엄하게 規制되는 現象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一般的 性格에 비추어 北韓에서의 社會化作業의 特徵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共產主義 基本原則에 따른 치밀한 計劃性에 있다. 人間形成의 過程이 個人的인 自意나 獨自性에 맡겨져 있지 않고 國家機關이 설정한 共產主義 人間型이라는 規格화된 組織人을 의도적으로 産出해내는 作業이 進行된다. 즉 物量的 計劃과 마찬가지로 北韓이 必要로 하는 人間만을 計劃적으로 양산하는 것이다.

既成의 文化가 提供되면서 取捨選擇이 可能的 폭넓은 人間形成은 北韓社會에선 容납되지 않으며 오직 제한된 文化-共產主義 文化-만이 供給되고 共產主義 이외의 文化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갖고 대

하는 共產主義의 性格의 形成을 위해 의도적으로 計劃되고 組織화된 社會化機構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北韓의 社會化는 意圖的 社會化 (purposive socialization) 내지 政治教化 (political indoctrination) 의 性格이 지배적이다. (이에 反해 多元主義의 性格을 가진 韓國社會의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社會化 (natural socialization)로서 政治社會化는 다소 制限된 領域을 차지하고 있다)

② 뚜렷한 示範性を 강조한다.

特定基準을 제시하고 全體國民이 그 模範을 同一視하고 同調할 것을 강요한다. 이러한 示範的 人物의 頂點에 政治指導者가 있고 그 下位에 각종 革命鬪士, 英雄的 勤勞者 등이 배열된다. 唯一思想은 그 離脫을 防止하는 理論的 根據가 되고 있다.

人間이 成長해가는 過程에서는 同一視의 對象이 있고 示範者가 있기 마련이다. 부모가 동일시의 對象이 되기도 하고 教師 혹은 歷史的 人物 등이 示範者로서 퍼스널리티 形成에 影響을 줄 수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示範者가 單一化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時間的으르도 영원히 작용한다.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여 모든 職場이나 地域社會에 下位 示範者를 가지고 있으며 北韓의 어린이는 어릴적부터 政治的 示範者를 존경하고 궁극적 同一視의 對象으르 崇拜하도록 양육된다.

③ 一生을 통한 社會化 作業이 推進된다.

社會化의 段階를 初期社會化 (early socialization), 青少年社會化 (adolescence socialization), 그리고 成年社會化 (adult socialization)로 區分해 볼 때, 北韓의 社會化는 全生涯에 걸

친 學習過程으로 철저히 펼쳐진다. 어린 시절부터 共產主義의 道德으로 무장하고 어른과 다름없게 行動하도록 要求되고 있으며, 어른들은 公共集會討論會 그리고 반복되는 자기비판학습회, 思想檢討組織生活등 再社會化의 訓練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終身的 社會化는 個人을 一生동안 社會的 감시아래 두는 것이며 逸脫하기 쉬운 個人性의 發想을 철두철미하게 차단하도록 조직화된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동일한 生活이 반복되고 家族이나 職場이 같은 하나의 규율밑에서 움직이도록 一生동안 同質의 社會的 規制를 받는 것이다.

④特有한 集團性이 강조된다.

「하나를全體를 위하여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아래 集團과 個人을 구분치 않고 集團의 平均値에로 모든 個人을 劃一化한다. 그리하여 「集團主義 精神教養」으로 組織과 集團의 이익을 앞세우고 自己犧牲, 組織에의 順應, 規律性을 要求한다. 集團的으로 是認되는 것만이 옳은 것이고 集團의 감시를 통하여 個人의 逸脫이 철저히 배제된다.

北韓에서는 모든 社會生活이 集團化되어 있고 集團的 規律 밑에서 規則的인 생활습관이 訓練된다. 어린 시절부터 託兒所나 幼稚園에서 集團性을 배우며 남과 일치된 行動을 함으로써 칭찬과 보상을 받는다.

⑤同調속의 自主性이 強調된다.

共產主義社會에서는 集團目的의 달성을 위해 個人의 自發性을 역하히 昂揚시키는가가 體制維持의 核心을 좌우한다. 集團的 타성이나 劃一的 同調를 통해 위촉하는 개인의 創意性을 集團能率의 향

상으로 吸收하기 위해서 目標量의 초과달성을 위한 個人努力의 倍加運動이나 過剩忠誠이 積極的으로 권장된다.

北韓에서는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 특히 情緒的 愛國性을 強調한다. 「社會主義的 愛國主義 教養」이란 國家를 向한 새로운 宗教的 情熱을 도출해보려는 目的을 가지고 있고, 이른바 主體性的 理論은 個人的 自負心을 기르고 보람을 찾게 함으로써 個人的 忠誠을 國家를 위해 總動員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特色을 지닌 北韓의 政治社會化는 人間을 特定圖式에 따라 鑄型化하고 特定の 틀에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충실한 社會的 役軍을 確保하고 意識構造를 劃一化함으로써 政治的 效果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社會生活全般을 統制可能한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作業은 매우 철저하고 組織的이며 體系的이어서 北韓에서 生을 享有하고 있는 사람은 共產主義 人間이 아니고서는 生存이 不可能한 制度的 壓力下에 놓여지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2) 家庭과 社會化

家庭은 人間生活의 요람지이며 社會生活의 基本的 單位이다. 그리고 또한 人間의 社會化가 시작되는 출발지이며 傳統文化의 內容이 계승되는 매개장이다.

傳統的으로 儒教理念이 지배적이었던 韓國社會는 社會化에 있어서 家庭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었다. 社會化에 있어서 家庭의 役割은 西歐社會의 경우 一般的으로 重要的 것으로 나타났으며, 現在 急速한 近代化의 물결로 韓國에서의 家庭의 役割은 다소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家庭은 傳統的인 社會化機能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 家族制度를 봉건적이며 共產主義理念에 어긋난다고 보고 生産의 集團화와 住宅의 集團화를 통하여 相互監視體制를 마련하여 傳統的인 家族觀念의 말소에 주력해왔다.

北韓의 「朝鮮家族法」 第1條는 「家族은 社會主義 革命理論의 실습장이며 生産의 최저단위이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韓國 社會의 家族概念, 즉 「家族은 혈연을 中心으로 하는 愛情의 結合體이며 社會文化의 歷史的 傳承機關으로서 모든 社會活動의 根本的 基低이고 發展의 主體의 원동력이다」라는 概念規定과는 本質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朝鮮家族法」에서의 「社會主義的 家族」概念은 家族間의 愛情을 資本主義的 遺物로 격대시하고 혈연관계에 대한 歸屬意識을 봉건적 사고방식이라 하여 배척하며, 傳統文化繼承을 보수적 낡은 思考概念이라고 비난할 뿐이다.

北韓은 1968年 3月 2日 이른바 「全國烈士家族 및 榮譽軍人家族大會」를 開催하고 「家庭의 革命化」問題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1970年 5次 黨大會에서 재차 強調하였다. 이처럼 強調하기 시작한 「家庭의 革命化」란 家族構成員들 조차 그들이 서로 부부이거나 형제이기에 앞서 革命思想的 同志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北韓 共產集團은 家族間의 愛情을 危險시하며 다만 共產主義 革命意識으로 충만한 계급적 意義를 지닌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며 이러한 사랑을 토대로 한 結合만이 진정한 「革命的 同志愛」로 結合된 革命家庭을 이룰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에서는 家庭을 단지 소위 「새로운 共產主義的 人間」을 만들어내는 革命의 기본세포로 간주하고 있다.

김일성은 1961年 11月 16日의 「全國어머니大會에서 한 演說」에서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아들의 생명보다 조국과 인민과 革命을 더 귀중히 여기는 어머니」 그리고 「共產主義者들을 기르는 붉은 어머니, 共產主義 어머니」가 될 것을 要求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 자신이 共產主義者」로 되어야 한다고 強要하였다.

이러한 北韓의 政策은 우리의 傳統的 家族制度和 家族關係 規範을 말살하여 家庭이 갖는 고유의 機能을 뿌리채 제거해 버렸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 家庭의 社會化 機能은 증래의 부정적 정책 노선에도 불구하고 現實社會에서 오히려 그 機能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징후를 發見할 수 있다. 즉 北韓은 1977年 9月에 發表한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提제」에서 소위 社會主義 教育方法을 言及하는 內容가운데 「學校教育和 社會教育의 結合」을 주시하면서 특히 靑少年 教育에 있어서의 家庭의 影響力을 強調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靑少年들은 家庭에서 生活하는 過程에서 教育的 影響을 많이 받는다. 家庭을 革命化하고 家庭에서 社會主義的 生活樣式을 철저히 確立하여 家庭生活 자체가 學生들에게 影響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시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現象은 家庭의 社會化 機能弱화에 따라 靑少年 社會化의 限階性과 모순으로 빚어지는 逆機能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韓은 이 같은 現實的 條件과 모순속에서도 集團主義 社會를 고수하기 위해 傳統的인 家族機能보다는 黨이 의도하는 統治이데올로기의 社會化 機能만이 可能하도록 託兒所·幼稚園 등에 의한 集團의 養育方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3) 託兒所·幼稚園과 社會化

北韓共產集團은 兒童의 教育 특히 價値觀教育을 家庭에 單의 존하지 않고 오히려 일찍부터 兒童을 어머니 품에서 분리시켜 女性을 産業職場에 進出시킬 뿐만 아니라 家族主義로부터 兒童을 끌어내어 퍼스널리티가 固着하기 이전에 集團속에서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改造하기 위해 託兒所와 幼稚園을 大量으로 設置하고 있다.

託兒所에서 集團主義 教育의 첫발을 내딛게 하며 兒童이 幼稚園에 가게되면 集團主義 教育은 더욱 強化된다. 兒童은 幼稚園에서 人格形成期를 거치면서 철저한 共產主義 教育을 받는다.

北韓은 1976年 4 月에 「어린이보육 교양법」을 制定하여 生後 2~3個月된 幼兒를 부모의 품에서 분리시켜 託兒所에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制度化하였다. 前 6 章 58條로된 「어린이보육교양법」의 要旨는 ①모든 어린이들을 國家와 社會의 負擔으로 양육하고 교양하기 위한 것이며, ②어린이들을 과학적이고 文化的으로 키우기 위한 가장 先進的인 制度라는 점, ③모든 어린이들을 主體型的 共產主義的 새人間으로 키우는 가장 革命的이라는 점, ④女性들로 하여금 子女를 키우는 負擔에서 벗어나게 하여 女性의 社會的 進出을 積極 保障하고 그들의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다그치게 한다는 점등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들이 提示하는 명분에 불과하며 그 眞意는, 첫째 부모로부터 子女에로 傳承되는 낡은 思想과 習慣을 단절하고, 둘째 家庭의 傳統的인 社會化機能을 黨的 社會化的 機能으로 대체하고, 셋째 女性의 勞動力 動員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해방이래 北韓의 託兒所 및 幼稚園網의 發展過程 중 특이사항은

<表 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1> 북한의 탁아소 및 유치원제도 발전과정

1947.6	탁아소 규칙에 대한 보건국명령 제 5 호
1964.7	유치원 사업을 개선 강화한데 대한 새로운 대책에 대한 내각 결정
1966.10	전국 보육교양원 대회
1967.	내각에 유치원지도국 신설
1968.	유치원 교육과정 제도 심의회 구성
1970.	전국유치원에 김일성교양실 신설
1972.5	만 5 세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줄데 대한 김일성 교시
1975.9	11 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
1976.4	제 5 기 6 차대회, “ 어린이 보육교양법 ” 채택
1979.3	최고인민회의 제 6 기 3 차회의 교육부문 보고 - 어린이 교육교양사업을 가일층 강화 -

北韓의 託兒所 制度는 6.25 당시 전쟁 고아들을 集團 수용하는 形態로 시작하여 暫次 實施되어 왔는데 現在는 고아들을 集團保育하는 育兒院 및 愛育院 이외에 부모가 있는 어린이를 수용하는 託兒所가 있으며 또한 託兒所와 幼稚園의 總數는 1983年 現在 約 6 萬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 350 萬의 幼兒가 수용되고 있다. (표 2 참조, 北韓은 1976年 以後 現在까지 출판 이와 같이 發表 하고 있다.)

<表 2 >

북한의 탁아소·유치원 현황

구분 연도	탁 아 소		유 치 원	
	탁 아 소 수	수 용 인 원	유 치 원 수	수 용 인 원
1946			64	3,918
1949	12	620	116	8,656
1953	63	2,165	19	1,048
1956	224	6,538	173	12,015
1960	7,624	394,489	4,470	295,485
1966	23,251	877,000 (적령기아동의 70%)	15,218	790,000 (적령기아동의 60%)
1970	8,600	1,200,000	6,800	950,000
1978 ⋮ 1983	탁아소·유치원 6 만여개소 탁아소·유치원생 350 만명			

1970年以後 6個年經濟計劃時 託兒所 및 幼稚園의 擴張 趨勢는 「3大技術革命」의 一環으로 女性들의 社會進出이 일층 강화되어 託兒所의 擴張이 현저하게 눈에 띄고 있는데 都市에 있는 生後 3個月 이상으로부터 만 2세까지의 幼兒들은 어머니들이 職場에 나가는 동안 모두가 日託兒所, 週託兒所 및 月託兒所에 맡겨지고 3세 ~ 5세 어린이는 幼稚園에 수용된다.

한편 농촌어린이들도 농번기에는 대부분이 상설 또는 계절탁아소에 수용되고 있다.

특히 北韓은 1972年 9月 以後 만 5세의 어린이에 대한 학령전

1年間の義務教育制를 시작함으로써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유치원의 수는 급격히 增大되고 있으며 施設과 規模도 일층 擴張되었다.

現在 北韓 託兒所의 施設 및 그 運營實態는, 「9.15 託兒所」등 몇 個의 託兒所는 1,000名 以上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용·선전용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마을單位·職場單位의 小規模이며 施設과 運用面에서 빈약할 뿐아니라 保母의 무성의로 「안장다리」 어린이가 많이 發生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託兒所·幼稚園 집단수용이 北韓 社會內部에 끼친 影響을 分析해보면 初期段階에서 漸次 家庭雰圍氣의 상실이 초래되면서 女性自身에게는 母性愛가 유린되고 부모와 子女들간의 거리감이 造成되며 이로 인해 靑少年들의 부모불신 풍조와 情緒의 고갈, 그리고 결국은 家庭에서의 子女教育機能은 전적으로 무시된 채 人間機械化로 변모되고 말았다. (도표 3 參照)

이러한 現象은 託兒所와 幼稚園의 教育內容과 方法에 있어서 김 일성 偶像化와 共產主義 理念의 注入을 위한 조건반사의 원리와 集團主義 原則이 採擇됨으로 인하여 빚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最近 北韓은 1일託兒所가 대부분인 現行制度를 週·月 託兒所制度로 전환, 運營하기로 한 바 있고 이로서 부녀자들은 더욱 노력 奉獻에 勸誘되고 있으며, 이러한 措置로 인하여 北韓社會에서는 우리나라의 傳統的 家族中心의 生活制度가 더욱 破壞되고 있다.

※주: 「안장다리」 어린이가 發生하는 이유는 기저귀를 잘갈아끼워주지 않기 때문인데 保母들은 대부분 말단간부의 부인으로 일에 성의가 없다고 함.

<表 3 > 여성 및 가정생활에 대한 탁아소·유치원의 영향

시 기	가 정 생 활	여 성 자 신
1953 년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분위기 파괴 ○ 지식에 대한 애착심유발 ○ 수고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상실
195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분위기 삭막 ○ 가정에 흥미 상실 ○ 자녀들과 거리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의 의무화 ○ 초조, 불만, 고민 ○ 직장생활 가능
196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가족제도 파괴 ○ 자신의 부모불신, 효성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애 상실 ○ 직장생활 강요 ○ 짓먹이는 수고 감소
196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분위기 삭막 ○ 편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경감 ○ 노력동원 ○ 허전한 피로움
1971-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교육 불충분 ○ 모자간의 정 파괴 ○ 편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교육 관심 희박 ○ 편안함

따라서 北韓의 兒童들은 金日成과 金正日 體制만을 위한 전투적·機械的 人間으로 「보양교육」되고 있는 것이다.

4) 學校와 社會化

學校의 社會化 機能은 現代社會에 와서 더욱 重要해졌다. 오늘날 거의 모든 社會에서 靑少年들이 가장 많은 時間을 學校에서 보내며 또 學校에서의 學習內容도 社會生活이나 職業에 관련된 價値들을 傳承하는 것이다. 家庭과 같은 原初集團에서 습득된 것은 게 마인샤프트적인 性格을 나타내나, 學校에서 처음으로 公式的·合理

的・非情意的 계절사프트規範을 습득하기 시작한다.

南北韓이 모두 傳統的 文化體係에서 離脫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學校는 새로운 社會化모델들을 소개하는 手段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韓國의 경우 社會化에 있어서 學校의 役割은 一般的으로 크며 중산층 이하의 家庭에서는 더욱 그렇다. 韓國의 教育目的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人格完成, 自主的 生活能力, 公民으로서의 資質등을 갖추어 民主國家 發展과 人類의 理想具現에 기여하는 「民主主義的 人間」을 形成함을 目的으로하고 있다. 教育의 內容과 方法은 自由로운 學問의 發達을 바탕으로하여 어떤 지식이나 價値觀을 注入하는 것보다는 學生이 學習活動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誘導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北韓의 경우, 「社會主義 社會에서의 學校는 革命化의 본거지이며 文化革命의 거점이다」라고 전제하고 「學校는 學生들의 학과학습뿐만 아니라 課外활동, 政治組織生活, 社會政治活動도 옹계 組織・指導해야 한다」라고 規定하여 「教授의 黨政策化」를 強調하고 있고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提제」), 이는 北韓의 政治社會化에 있어 學校의 重要性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레닌의 「生活에서 유리된 또 政治에서 유리된 學校-그것은 虛僞이며 僞善이다」라는 말이 北韓教育의 좌우명이 되었다. 그들은 初期社會化의 重要性을 強調하면서 學校는 물론 幼稚園・託兒所에 이르기까지 이데올로기가 教育의 核心이 됨으로써 모든 學校는 公式的 政治教育手段이 되었고 그 결과 體制安定에 重要한 個人・國家間的 肯定的 連鎖關係 形成에 기여하고 있다.

北韓教育의 社會化的 効果는 이데올로기적 內容에만 根據하는 것

이 아니라 革命傳統敎養의 強調, 革命戰跡地 답사, 勞動現場의 實習 등 理論과 실제의 긴밀한 結合, 성공적인 人間像이나 現實的인 英雄들을 社會化的 Model로 제시함으로써 同一視效果의 기대, 體制面에서 肯定的 모델(共產社會)과 否定的 모델(民主社會)의 對照, 反復學習과 暗記, 그리고 學習內容의 實踐등 그들 나름대로의 세련된 敎育方針을 使用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소련의 「集團主義 敎育原理」를 모방하여 敎育方法의 主要原理로서 集團의 原理, 競爭의 原理, 償罰의 原理, 相互監視와 批判의 原理, 自制의 原理등을 強調하여 下向的이고 機械的이며 非主體的 敎育方法에 의존하고 있다. 敎育雰圍氣도 엄격하여 規律遵守와 敎師의 권위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통하여 장차 社會政治的 法規와 權威에 대한 복종을 습관화시키고 있다.

北韓은 이와 같은 敎育原理와 敎育方法에 의해 全靑少年들을 철저히 集團的으로 政治社會化하고 있다.

北韓은 인민학교에서 부터 大學에 이르기까지 各급학교에서 5百萬名의 學生들이 敎育받고 있으며 人口 1천명당 學生數가 372名으로 世界的으로 學生比率이 가장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차 불력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 敎育 및 文化部 부장회의에서 文化藝術部 장철 부부장 발표 83.9.25) 여기서 南北韓間의 學校數 및 學生數를 比較해보면 <표 4-1>와 같다.

< 表 4-1 >

남북한의 학교 및 학생수

구 분	한 국 ①			북 한 ②		
	학교수 (개)	학생수 (천명)	진학율 (%)	학교수 (개)	학생수 (천명)	진학율 (%)
국민학교 (인민학교)	6,500	5,257.2	98.6	(4,760)③	5,000	○ 인민학교 → 고등중학교 92.6 (100) ⑤ ○ 고등중학교 → 대학 15.8
중 학교	2,311	2,816.6	89.4	※고등중학교		
고 등 학 교	1,572	2,069.6	56.1	(4,150)④		
특 수 학 교	71	11.5				
전문대학 (고등전문학교)	131	216.2		600		
대 학 (교)	127	797.4	16	146		

주 : ① 한국통계는 「문교통계연보」 (문교부 83) 에 의거

② 북한통계는 제 1 차 블럭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 교육 및 문화부 부장회의에서 문화예술부 장철 부부장 발표 (조선중앙방송, 83.9.25) 에 의거.

③④는 당원 추계치임

⑤ 「고등중학교 학생수 × 4/6 ÷ 인민학교 학생수」 및 「대학생수 ÷ (고등중학교 학생수 × 4/6)」 에 의거산출

北韓이 學生數에 있어서 韓國의 절반에도 못미치는데도 學生數에 있어서 學生數만큼 韓國과 큰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北韓이 발표한 學校統計 속에는 주르 工場과 協同農場別로 設置되어있는 勞動者들의 보수교육기관인 工場大學, 農場大學, 漁場大學등과 各道 및 市郡에 設置되어 있는 共產大學이나 郡黨學校와 같은 非正規教育機關까지도 모두 包含되어 있기 때문이다.


南北韓은 基本學制에 있어서 각 6-3-3-4 制와 4-6-4 制를 採擇, 實

施하고 있어 形式的인 教育制度面에서는 큰차이가 없으나 內容面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표 4-2〉 參照)

< 표 4-2 >

學 制

韓 國	年 齡	北 韓
	30	
	29	
	28	
	27	
	26	
	25	
	24	博士院 (2)
	23	
	22	研究員 (3)
	21	
看護 專門大 (2) 專門大 (3)	20	
教大(4) 大學(4~6)	19	
	18	大學(4~6) 教員(3) 高專學 等門校(3)
高等學校 (3)	17	
	16	
	15	
	14	
中 學 校 (3)	13	高等中學校(6) - 高等班(2) - 中等班(4)
	12	
	11	
	10	
	9	
	8	人民學校 (4)
	7	
	6	
稚 稚 園 (1)	5	幼稚園(2) - 높은반(1) - 낮은반(1)

- * 凡例:  內는 義務教育期間임.
- ** 北韓은 黨 5 期 4 次全員會議 (1972.7)에서 < 10 年制高中 義務教育과 1 年間學校前 義務教育 > 을 1972 年 9 月부터 段階的으로 實施할것을 決定
- *** 北韓은 1975 年 9 月에 < 11 年制 義務教育 > 이 完全히 實施되었다고 宣稱하고 있으나 內實을 기하고 있지 못함

北韓은 初等教育期間을 4年으로 하고 있는 反面에 韓國은 6年으로 하고 있다는점과 義務教育年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社會體制의 基本的인 차이에서 연유한 結果이다.

한편 北韓은 전반적 11年制 義務教育을 實施한다고 주장,고등중학교 진학율이 100%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1980.10 6 차당 대회인 김일성 연설에서 「全般的 義務教育에 원만히 힘을 넣으면서……」 운운한 <표 4-1> 에서 보는바처럼 고등중학교에의 진학율이 92.6%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11年制 義務教育制가 완전히 實施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모든 生活手段을 國유화하고 學校와 敎員을 國家의 一원적 管理下에 두고있는 北韓體制에서는 子女들에 대한 無償教育의 實施는 너무도 당연하다. 뿐만아니라 北韓의 現賃金體系 및 所得構造로 볼 때 尙敎育을 實施한다면 學부모의 負擔能力도 問題가 될것이다.

더우기 學生들에게 社會勞動을 義務化시키고 여기에다 敎복, 敎과서, 學用品등의 費用을 學부모가 부담토록 되어있어 실질적으로는 무尙敎育이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北韓은 初等教育에서 부터 黨幹部를 비롯한 特權階層의 子女들을 對象으로하는 「革命遺子女學院」 등과 같은 特權的인 特殊敎育機關을 별도로 운영하여 간부양성을 위한 差等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이와 같은 北韓의 特殊한 學制管理와 長期間의 義務敎育制度등은 學校의 社會化 機能과 役割을 높이므로써 劃一的 共產主義 人間改造에 철저히 복무토록 하고 있다.

北韓의 人民學校 敎과서를 內容別로 分析해보면 <표 5-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金日成에 대한 頌詩로 시작하여 金日成에의 忠誠 強調 32%, 戰爭意識고취 27%, 社會主義愛國教養 9%, 組織教養 4%, 一般教養 29%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표 5-1>

인민학교 교과서 내용분석

(단위 : %)

목 적	내 용	국 어	산 수	공 산 도 덕	김일성협동원수명활동	음 악	글 씨	도 면 공 작	계
1. 김일성 에의 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찬양 ○ 김일성 조상 및 친척 ○ 김일성집 (만경대) 	10	16	23	30	4	9	4	96 (32)
2. 전쟁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무기 (병기) ○ 군사놀이 ○ 소년단 ○ 반미사상 고취 ○ 반일사상 고취 ○ 미제자본가 적개심 	10	31	18	-	6		16	81 (27)
3. 사회주 의국가 찬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깃발 ○ 자본주의 배경 (남한비방) ○ 사회주의 찬양 ○ 노동자 찬양 ○ 협동농장 선전 ○ 북한의 우월성 강조 ○ 천리마등상 	3	10	11	-	3		1	28 (9)
4. 조직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등놀이 ○ 등교모습 	2	5			2		1	10 (3)
5. 일반 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계산 ○ 기타 (집, 등화) 		59			3		27	89 (29)
계		25	121	52	30	18	9	49	304 (100)

< 표 5-2 >

인민학교 교과내용의 구성

과 목	학습량	교 재 구 성	내 용 (요 소)
국 어	20 과 72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관계 그림 40% ○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투쟁, 어린시절 지도력 현지지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우상화, 충성심 강요 ○ 혁명정신 함양교취 ○ 반미·반일사상, 투쟁의식 교취
산 수	16 과 144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관계 그림 30% (차량, 병정놀이, 전차포, 소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인 숫자, +, - 계산과 측정 ○ 문제내용: 김일성사상, 반미·일과 관련
음 악	20 과 54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가 노래 (26 곡) ○ 군가·행진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찬양 ○ 공산주의 찬양
도화 공작	26 과 26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화 85%, 공작 15% ○ 그림내용: 전쟁물자 (탱크, 아카보소총, 트럭, 포)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숭배 ○ 반미·일사상 ○ 북한사회 발전
공산주의 도 덕	37 과 100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및 김일성 우상화 : 그림 50%, 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관계: 어린시절 동경, 김사, 혁명활동과 유격대원들 김일성 따라 배우자, 국기, 김일성 구호 ○ 소년단정신, 협동정신, 반미·일감정 ○ 북한사회제도 찬양, 자본주의 비난
글 씌	8 과 14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적 설명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숭배찬양 90%
김일성 원수 혁명활동	22 과 42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가족사진 ○ 김일성숭배, 찬양, 군함, 바위 ○ 김형직, 강반석, 김형권, 김철주등의 과거 혁명투쟁이야기
역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명사관에 입각 ○ 1930년대 이후의 김일성 혁명투쟁
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일혁명 투쟁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전승지 강조
체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성 위주의 명칭 사용 ○ 국방체육의 일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놀이, 조국통일 달리기, 만경대 달리기
위 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상태를 가상한 위생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조치, 압박붕대 사용법

그리고 人民學校의 各 과목별 教材構成을 살펴보면 국어는 金日成의 傳記와도 같은 內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서시간의 그림실기에 있어서도 戰爭을 主題로한 그림이 아니면 수령의 초상화를 그려야 하는 등 전과목이 김일성우상화를 비롯한 思想教育 爲主로 構成되어 있다.

北韓學生들은 한편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社會化시킨다는 명목아래 고등중학교 이상의 學校에 대하여 소위 勞動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1959.3.2, 「學生社會義務勞動制를 實施하는데 대한 내각결정 제18호」) 1961年부터는 人民學校 學生들에게도 「좋은 일하기운동」을 實施하여 「學生社會義務勞動」에 참여시키고 있다. (표 5 - 3 참조)

< 표 5 - 3 > 각급 학교별 연간 사회노동 기간

각급학교 노동종별	대 학	고등전문학교	고등중학교	인민학교
의 무 노 동	12 주	10 주	4-8 주	2-4 주
농업지원노동	60 일	60 일	30 일	

주 : 농촌지원 노동일수는 고등중학교의 경우 의무노동 기간에 포함되고 있으나, 전문·대학은 일부만이 포함됨.

주 : 인민학교는 3 - 4 학년에 한함.

이같은 學生의 勞力動員은 1973年度에 「3大革命小組」活動이 強化된 이후로 더욱 增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1973年9月부터 소위 「6개년 경제계획」의 早期達成이란 명목아래 고등중학교 5학년 이상은 정상수업을 폐지하고 工場, 鑛山, 각종 建設

事業場 및 農漁村에서 「現場學習」이란 구실하에 強制勞動에 동원되고 있다.

靑少年의 生産勞動에의 동원 이외에 學校에서의 課外活動은 또한 北韓의 政治社會化에 있어서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章에서 說明되고 있다)

5) 社會團體와 社會化

南北韓 社會化過程을 比較하는데 있어서 家庭과 學校 이외의 其他 社會化機關들의 役割이 가장 對照的이다.

韓國의 경우 同僚集團, 宗教集團, 靑少年團體, 其他 成人社會團體 등은 政府에 의한 統制도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個人은 상당한 정도로 自律的 選擇이 可能하다.

이러한 機關들은 友情, 教養, 娛樂, 消費行爲 등 社會化者의 現實的인 問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社會化에 끼치는 影響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北韓의 경우 自律的으로 選擇할 수 있는 同僚集團이나 종교집단은 극히 制限되어 있으며 모든 社會團體는 政治性을 띠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社會團體는 政治權力的 核을 이루는 勞動黨의 외곽단체와 같은 性質의 것이어서 黨의 統制下에 組織運營되며 그들 統治이데올로기의 社會化機能을 각기 분담하고 있다.

北韓의 靑少年들은 學校 教室內에서 教員에 의한 思想教育만이 아니라 학원내의 社會團體를 통한 組織生活에서도 思想教育을 받는다. 北韓 靑少年들의 意識構造 形成에 있어서 重要的 主管者는 學校라기 보다는 오히려 「少年團」 「社會主義 勞動靑年同盟」, 「붉은靑년근위대」 등 靑少年 社會團體의 組織活動이다.

北韓의 學生들은 各及學校를 中心으로 이러한 性格을 가진 社會 團體와 課外活動에 중첩적으로 철저한 指導・統制를 받는다. 그 한 例로 思想教育에 있어서 教室에서 교원에 의해 教育받는 것보다 오히려 組織生活에서의 活動을 통해 받는 思想教養이 그 심도가 더 깊다.

北韓 靑少年들의 組織生活關係는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 북한의 각급 청소년 조직생활과 과외활동 내용

1. 조직생활 영역

조 직	주 요 활 동	비 고
사르청	당정책과 노선을 일반대중에게 전달하고 당의 후비대로 활동함	중 3 - 대학 (1964.1.17 창설)
조선소년단	아동단원의 투쟁정신 함양과 능률생활 문화 건설에 참여	인민 3 - 중 2 (1946.6.6 창설)
붉은청년군위대	학생들의 반항요소 색출의 특별임무를 맡고 자아비판과 상생결속을 위한 활동전개	중・고생대상 (1968.1 창설)
배움의 천리길 행군운동	층성의 모임, 팻말행진, 회상기모임등	김일성대학에서 시작됨(1973.3)

2. 과외활동 영역

활 동 내 용	주 요 활 동	비 고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실운영	각급학교 단위로 하나씩 설치하고 방과후에 조편성에 의해 이용함.	일반주민도 이용함
김일성 혁명활동연구	담임교사의 주관으로 김일성 혁명활동에 대한 토의	학생활동 월 2회 실시
김일성 혁명활동 연구소조	김일성 혁명활동을 토의하고 선전	학생활동 매일 1회 실시
소년선전 예술 대경연	김일성을 소개르 한 시, 노래, 이야기등 경연모임을 가짐	학생활동

「少年團」에는 9 ~ 13 세의 어린이, 그리고 「社勞靑」에는 14 ~ 30 세의 靑年이 義務的으로 加入하고 있는데 1981年 10月 第7次 「社勞靑」大會를 계기로 급격히 增加하여 現在 「社勞靑」 靑年수는 약 400 萬名에 達하고 있다. 靑少年 組織生活에서 가장 重要적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社勞靑」은 共產黨의 후비대 내지는 訓練所이며, 「少年團」은 「社勞靑員」의 育成단체로서 靑少年의 初期社會化에 가장 큰 影響力을 행사한다.

이와 아울러 「붉은靑년근위대」는 일종의 民兵組織에 該當하는 靑少年軍事組織으로서, 문자 그대로 北韓의 권력층을 사수하기 위해 소위 反革命的 要素를 제거하는 靑少年層의 監視役割을 수행하고 있다. 이 組織은 유사시에는 軍下級機關의 보충을 위한 결사대의 임무를 수행하며 學校單位別로 中대 梯隊로 편성되어 있다.

靑少年들이 學校를 卒業하고 社會에 進出해도 각종 社會團體의 組織生活에서 規制를 받게된다.

各種 名稱의 成人社會團體중 가장 規模가 큰 團體는 「朝鮮靑工業 勞動者職業同盟」등 10개 産別 職業同盟을 包含하여 약 250 萬名の 靑年수를 가지고 있는 「朝鮮職業總同盟」과 260 萬名の 靑年수를 거느린 「朝鮮農業勤勞者同盟」, 그리고 靑年수가 270 萬名인 「朝鮮民主女性同盟」, 작가등맹등 7개 同盟으로 構成된 「朝鮮文學藝術總同盟」등이며, 그 밖에 「朝鮮記者同盟」과 各種의 委員會등 勞動黨의 직접적 의과단체 구실을 하는 組織들이 다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言及한 「少年團」과 「社勞靑」과 같은 靑少年團體들까지 합하면 9 세이상의 學生·靑少年·成人 등 모든 男女老少들이 어느 團體이건 加入하게 되어 있다.

이 모든 團體의 事業은 「黨의 政策化」라는 基本方針에 따라 黨의 統制아래 推進된다. 이들 團體들의 事業은 團體의 性格에따라 다소 다르나, 生産性向上을 위한 勞動力의 總動員과 政治教化를 위한 政治學習의 強化 등 크게 둘로 대별된다.

各種 團體나 組織에서 「革命家로서의 共產主義的 새 人間」을 만들어 내고 키우기 위하여 集團學習의 方法을 공개적으로 採擇하고 있다. 自己批判, 集團討論 集團決定의 形式으로 個人的 要素가 억압되고 集團的 同調만이 권장된다. 北韓의 集團主義的 原則이 길들여지고 擴大 再生産되는 곳이 바로 각종 集團에서의 組織生活인 것이다.

6) 大衆媒體와 社會化

北韓에 있어 住民의 思想을 統制하고 共產主義的 價値觀을 함양하는데는 이상의 學校教育·團體生活이외에도 매스미디어의 役割을 들지 않을 수 없다.

北韓에서는 모든 種類의 大衆媒體를 國家가 獨點하고 있다. 新聞·라디오·TV, 映画, 雜誌는 물론 出版이나 學術書籍도 統制되고 있다.

본래 大衆媒體가 갖는 情報傳達, 娛樂, 教養 등의 機能도 黨性·階級性·革命性的 原則에 입각하여 수행하도록 黨의 統制를 받게 된다.

黨의 엄격한 統制와 검열제도 속에 놓여있는 北韓의 매스미디어와 文化活動은 각각 黨中央委員會 「宣傳煽動部」와 「文化部」에서 관장하고 있다.

北韓의 新聞들은 黨과 그 산하단체 및 其他團體들의 機關紙로서 뉴스의 傳達이나 教養娛樂手段이 아니라 레닌이 規定한 바와 같이

「集團的 宣傳煽動者 및 組織者的 役割」을 수행하고 있다. 北韓에서 가장 대표적인 新聞인 黨機關紙 「로동신문」의 과업에 대해 同紙創刊 25周年 祝賀文에서 新聞의 과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北韓當局이 지적한 新聞의 과업은,

- ①全人民을 黨의 唯一思想으로 무장시킬 것
- ②全人民의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다그칠 것
- ③文化革命의 水準을 높일 것
- ④國防力強化와 南朝鮮革命, 그리고 祖國統一에 대한 黨의 政策과 方針을 철저히 관철할 것
- ⑤金日成의 思想과 革命實踐, 그리고 그 교시를 널리 보급할 것 등이다.

韓國은 다수의 大衆媒體가 民間에 의해 運營된다. 民營은 收益性 위주의 自由企業의 性格을 띠고 있으며 모든 運營의 自律的 統制에 의거하고 있다. <도표 7>에서 南北韓間의 新聞社組織을 중심으로 大衆媒體의 運營과 統制의 差異를 볼 수 있다.

<표 7> 남북한 신문사의 운영체제

구 분	한	국	북	한
경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기업 ○ 상업주의 체제(수익성 위주) ○ 자율적 사회책임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주의 공산체제 ○ 각급 당 및 기관의 기관지 체제 ○ 허가 및 통제체제 	
통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통제 ○ 신고에 의한 등록체제 ○ 정부통제 및 검열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통제 체제 ○ 완전검열 통제 ○ 각급 당 및 내각의 검열체제 	

大衆媒體에 있어서 傳達內容을 보면 韓國은 自由取材, 報導 및 論評에 의거해서 다양하게 구성된다. 國內外 政治問題, 經濟動向, 社會文化, 娛樂, 小說 및 漫畫 등이 均衡있게 취급되고 있다.

北韓의 大衆媒體의 傳達內容은 金日成 演說文, 革命傳統承繼, 共產主義教養, 黨政策의 宣傳, 對南惡宣傳 등으로 構成되고 있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新聞과 放送의 報導內容에 있어서 紙面活子, 記事內容, 記事分布를 比較해 보면 大衆媒體에 의한 傳達內容은 南北韓間에 큰 差異가 있다.

< 표 8 >

남북한 신문게재내용 비교

한	국	북	한
○ 일일특뉴스		○ 김일성 우상화내용	
○ 대통령담화 및 지시등의 뉴스		○ “혁명전통” 승계에 관한 내용	
○ 정책시책 및 정부뉴스		○ 당정책의 선전과 실천·강요	
○ 정당관계 및 국회뉴스		○ 경제건설에 관한 내용	
○ 경제일반 및 경제동향, 건설뉴스		예 : 천리마운동, 청산리 방법	
○ 국제뉴스 및 외교관계 뉴스		○ 대남정책으로 남한의 악선전	
○ 기획기사 및 특집		○ 조국통일에 관한 내용	
○ 사회상 및 법원뉴스		○ 반미운동의 선등과 악선전	
○ 체육문화 및 각종행사		○ 국제뉴스	
○ 오락, 취미, 소설, 만화			

新聞·放送 이외의 雜誌등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宣傳을 主目的으로 하여 黨 및 그 산하단체의 機關紙的 性格을 띠고있다. 定期刊行物을 비롯한 모든 出版物은 「內閣總出版局」의 엄격한 검열을

받으며 黨의 路線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밖에 映画와 연극에서도 思想教育과 黨政策의 合理化의 性格이 뚜렷이 나타난다. 영화감상과 연극관람이 주민들의 취미나 여가 이용으로 機能하는 것이 아니라 各 工場·企業 및 協同農場別로 月 2회이상 관람특히 強要되어 작품속의 주인공을 본받으라면서 住民들의 勞力動員手段으로 이용되고 있다.

3 . 社會管理方式의 比較

가. 生活의 基本方式

人間이 한 地域에 모여 共同生活을 영위하면서 그 條件을 改善·發展시켜 나가는 것은 모든 社會에 공통된 現象이다. 그러나 삶의 方式은 文化傳統과 國家理念 또는 政治理念, 價値觀, 規範, 人間關係의 樣式, 自然的·經濟的 條件등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 南北韓은 分斷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고유의 生活方式을 영위하면서 같은 민족으로서 온갖 희비애락을 같이해 왔다.

그러나 南北分斷이래 政治理念과 體制를 달리하였기 때문에 生活方式마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도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의 삶의 方式은 自律的인 選擇에 의한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共同善(민족공동체의 지속적 유지와 번영)을 向하여 서로 타협하고 協同하여 生活條件을 改善·進歩·發展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韓國은 각 個人의 自律的인 努力과 社會的인 責任을 중요시하며, 자신의 행복을 남이 결정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北韓의 경우, 人間의 合目的性을 부인하고 人間이 쉽게 현혹될 수 있는 物質的 條件을 약속하면서 平等을 위장하여 個人의 自由를 구속하면서, 달성이 不可能한 유토피아를 指向하는 革命에 모든 住民을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全體를 위장하여 1人獨裁·1黨獨裁를 구축하고, 이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모든 住民을 政治組織에 예속시켜 統制를 용이하게 하면서 強力한 政治教化를 實施하고 있다.

< 표 9 >

남북한생활의 기본방식 비교

구 분	한 국	북 한
이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존중, 개성존중 ○ 최선아의 실현 ○ 복지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합목적성 부인 ○ 평등을 위장하여 개인적 자유 구속 ○ 혁명지향 (달성될 수 없는 유토피아 약속)
생활의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선택 ○ 스스로의 행복 추구 ○ 공동선을 위한 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율적 통제 ○ 전체를 위장한 1인독재, 1당독재에의 예속 ○ 조직생활의 강화
사회적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성과 다양성 ○ 자율성, 개성우위 ○ 타협, 협동에 의한 진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쇄성, 획일성 ○ 타율성, 집단우위 ○ 강제적 명령에 의한 혁명성

北韓共產集團은 모든 住民으로 하여금 삶의 보람을 黨과 그 영도자를 위하는데서, 그리고 黨이 推進하는 革命속에서 찾도록 할 뿐이고, 살고 죽는 問題마저도 黨에 달려있는 것으로 認識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規定하는 理想的 人間은 黨과 金日成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그들이 택하는 삶의 방식 역시 黨과 金日成을 위해 쉽게 동원될 수 있는 組織生活를 基本으로 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이렇게 金日成과 그의 黨에 추종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 있다.

나. 欲求管理

1) 管理方式

人間的 욕구는 多様하다. 衣食住와 같이 生存과 관련된 生理的 欲求에서부터 安全·所屬·地位·認定·成就·自由 등의 社會的 欲求에 이르기까지 人間的 공통된 欲求는 수없이 많다. 특히 社會的 欲求(2次的 欲求)는 文化的·社會構造的 特性에 따라 欲求의 種類와 強度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여러 研究에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2차적 欲求는 삶의 기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社會的 欲求는 文化的·傳統的 規範과 社會構造的 特性으로 인하여 더욱 促進되기도 하고 抑制되기도 하여 삶의 기회와 生活의 條件여하에 따라 여러가지 形態로 나타난다.

北韓의 境遇에는 모든 社會生活의 條件이 統制되며, 그러한 統制 社會를 유지하기 위하여 個人的 欲求를 의도적으로 管理하여 集團의 欲求에 歸屬시킨다. 따라서 生理的 欲求를 制限한 그들의 社會的 欲求는 黨과 수명을 위해서 鬭爭하는 方向으로 公式化된다.

실제로 그들에게서 높아지고 있는 社會的 欲求는 黨의 인정을 받아 높은 지위에로의 上向上現象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10 >

남북한의 욕구관리방식 비교

한	국	북	한
○ 욕구의 다양화		○ 욕구의 공식화· 획일화	
○ 욕구의 자율적 관리		○ 욕구의 타율적 통제	
○ 욕구의 개발에 의한 발전촉진		○ 욕구억제로 인한 발전의욕 상실	
○ 욕구상승으로 인한 상대적 불만고조		○ 집단적 욕구를 위한 개인적 욕구 희생	

<도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韓國의 경우에는 多様な 社會的 欲求를 자극하고 開發하여 個人的・社會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自律的 欲求의 管理를 理想으로 하고 있다.

실상 個人이 가지는 높은 發展意欲에 의하여 經濟的 活動이 活發해지고 이에 따라 社會的・國家的 次元의 發展이 促進된다. 반면에 欲求의 上昇과 經濟的 發展의 不均等으로 인한 相對的 不滿이 커지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불만과 갈등을 建設的으로 해소할 수 있게 삶의 기회와 條件을 多樣化하고 社會的 不均等を 제거하기 위한 多様な 政策이 樹立・施行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人間의 欲求의 最大開發과 充足機會 및 條件開發을 지향하는 우리의 體制와, 欲求를 統制・억압하여 획일화하는 北韓의 體制를 比較하면, 韓國社會에서는 희망과 기대, 努力에 대한 보람된 生活條件이 약속되어 있지만 北韓의 경우에는 閉鎖的・統制的 條件下에서 人間의 欲求가 抑制되고 있다. 人間의 基本的 欲求마저 抑制되고 있는 北韓의 경우 그 자체가 불행한 條件일 뿐만 아니라, 외부적 자극이 주어질 때 일시에 心理的 登요가 유발되고 불만의 정도가 擴大될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에서는 이러한 可能性을 배제하기 위하여 社會閉鎖를 強化하며 온갖 政治的 教化와 組織的 活動을 전개하고 있다.

2) 收入과 消費生活

南北韓은 그 經濟體制를 달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國民生活 與件과 관련된 數量的 比較 자체로서는 그 의미가 크게 줄어들지만 住民들의 收入 및 그에 따른 消費水準을 比較해 보면 北韓住民들의 文化生活水準을 단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經濟體制 如何를 막론하고 經濟發展의 궁극적 目標는 國民厚生의 增大와 福祉向上에 있다고 하겠으나 現實的인 問題로서 國民生活의 向上은 事實상 體制의 特殊性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韓國은 自由民主主義 國家로서 國民의 福祉向上에 政策目標를 두고 있는 반면, 北韓은 住民의 福祉向上을 부차적으로 하고 戰力增強을 통한 한반도 赤化統一을 政策의 최우선으로 하여왔다.

따라서 이것은 産業構造面이나 社會施策面에서도 그대로 反映되어 北韓은 아직도 重工業分野가 우선시되는 가운데 經工業分野는 유치한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狀況下에서 住民들의 生活條件 改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北韓經濟는 黨의 統制下에 있는 中央計劃行政機關이 모든 個人的 賃金과 商品의 價格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社會成員들의 消費의 水準 및 패턴을 規定짓는 閉鎖體制이다.

이와 같은 北韓經濟는 政治的·思想的인 面을 너무 強調한 나머지 合理的이고 客觀的인 經濟的 決定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官僚 조직이 비대하고 고도로 中央集權化되어 있어 가장 效果的인 經濟 管理方法을 採擇할 수 없다.

北韓은 철저한 監督과 繼續的인 政治性的인 注入에도 불구하고 勞動者 개개인들이 社會主義的인 要求에 대하여 최대한으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며 빈틈없이 組織되고 고도로 訓練된 國家機關이 人間의 창조력과 經濟的인 專門化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重要한 問題는 北韓 지도층이 갖는 特權과 細分化된 社會經濟的인 等級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

과 理想的으로 내세우는 平等原則과의 괴리는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北韓의 賃金構造는 同一階層, 同一職種內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階層과 階層間, 예컨대 勞動者와 藝術人, 教授, 政權機關의 官吏間的 平均賃金 隔差는 상당히 크며 모든 生活條件과 生活必需品이 社會的 身分階層에 따라 差等的으로 供給되기 때문에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면에서 엄청난 階層間的 生活隔差를 이루고 있다.

<도표 11> 과 <도표 12> 에서 보면 個人의 한달 평균봉급 (90~100 원) 을 가지고서는 고급전직물을 2 미터 밖에 살 수가 없고 116 원하는 男子既成服을 살수 없다. 또한 19 인치 흑백 T.V를 사기 위해서는 5 개월치의 월급을 전액 지불해야 할 정도로 實質的 賃金水準이 극히 낮다.

이밖에 고기통조림, 인삼주, 화장품, 만년필, 핸드백, 평상화, 목욕수건 등은 거의가 비싼가격이고, 美術品, 자수품, 공예품, 칠기상자들과 같은 藝術品들은 賃金에 비하여 엄청나게 비싼 편이다.

그리고 一般 共產圈國家들에서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가정용 선풍기, 자전거, 팔목시계, 사진기, 양산 등과 같은 물건들은 평양 시내 大規模 百貨店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고 外國製品들도 전혀 볼 수가 없다. (參照: 國土統一院 역, 北韓訪問記, 71 면~77 면)

이와 같은 현상은 北韓當局이 重工業 優先政策으로 인하여 基本的인 生必需品 生産이 住民들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편 經濟難으로 住民들의 消費을 엄격히 統制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分

析된다.

한편 이와 같은 일반 住民의 生活相에도 불구하고, 고위 당·정
간부와 군장성과 같은 特權層들은 特別專用 商店에서 高級商品을싼
값으로 살수 있고 새아파트에 入注 配定을 받으며 肉類를 비롯한
각종 食料品도 特別히 供給을 받는 特權을 누리고 있다.

< 표 11 >

계층별 월급수준

(단위 : 원, 대략 1 원은 50 센트에 해당)

사 무 원	5 등 급	90
	1 등 급	300
교수 (김일성대학)	강 사	100 - 150
	정 교 수	200 - 250
의사 (평양산원)	5 등 급	120
	2 등 급	200
	1 등 급	250
공장노동자 (대안중기계공장)	일 반노동자	90
	최하급노동자	70
	최상급노동자	130
	기술자 (5 등급)	75 - 78
	기술자 (1 등급)	125 - 128
교사 (평양인민학교)	초 임 교 사	78 - 80
	교사생활 20 년인 교사	120

(출처 : 국토통일원 역, 북한방문기, 73 면)

< 표 12 >

平壤商店에서의 商品價格

(단위: 원)

고급실크 (미터당)	45.50	학생용 만년필	5.50
저급 레이온 (미터당)	3.55	" 노트	1.80
어린이용 한복 (색동옷)	11.20	연필 (12 자루)	1.20
여자용 치마	7.40	필 통	3.00
여자용 실크옷 (조선옷)	50.00	학생용 모자	5.00
남자용 소매달린셔츠 (폴리에스터)	28.00	어린이용 합성수지 신발	1.50
남자용 자켓 (")	62.00	" " 구두	2.30
남자용 신사복 (")	116.00	실내화	1.40
수건 (인건사)	2.30	여자용 합성수지 신발	3.80
학생용 가방	3.60	" 굽이 중간치인 신발	15.60
분(소) ("인삼표")	2.20	비누 ("인삼표")	2.00
"(대) (")	3.00	전기사진기	350.00
얼굴크림 ("인삼표")	3.00	아코디언대 ("백두산표")	680.00
치약 ("고려인삼표")	1.20	" (소) ("평양표")	400.00
여자용 빗	1.20	칠기화장품상자	68.00
부 채	1.50	벽시계	28.00
닭고기통조림	3.45	책상시계	20.00
청어통조림	2.20	축구볼	12.00
돼지고기통조림	3.80	테니스라켓	13.00
돼지염통통조림	4.70	합성수지로된 손가방	23.00
소고기통조림	6.00	알루미늄으로된 밥통	10.00
깡통과자	2.50	보온병	15.00
사과통조림	1.80	만년필 ("만경대표")	20.00
대동강계흑백 T.V. (19인치)	500.00	술 ("홍삼술")	16.10
		술 (인삼술)	8.04

(출처: 국토통일원 역, 북한방문기, 76-77면)

3) 食生活

食生活條件의 充足은 文化的 傳統과 經濟水準, 그리고 經濟政策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직까지도 韓國에서는 전통적인 食生活樣式이 그대로 保存되고 있는 가운데서 經濟的 成長과 生活意識의 變化에 따라 量的인 面에서 뿐만 아니라 質的인 面에서도 食生活水準이 크게 向上되었으며, 이와 함께 消費性向 또한 다양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高級食料品, 예컨대 쇠고기, 우유, 달걀, 콩조림, 설탕 등의 消費率이 점차 크게 높아져 70年代에는 60年代의 약 4 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食生活水準은 아직까지도 섭생위주로 量的 充足의 水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北韓에서는 協同農場員을 제외한 全住民에게 食糧配給制를 실시하고 있어 個人的 食性と 嗜好에 맞는 食생활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각자가 먹으려만큼 먹을 食糧의 절대량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부족분을 개별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配給이외의 암거래에 의한 구매가 가능하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고 처벌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實情이다. 北韓에서 암시장의 쌀가격은 配給가격의 30 ~ 50 배나 되며 白米 소두한말 (7 Kg)에 1個月 賃金과 맞먹는 70원 ~ 90원에 달해 去來規模는 극히 제한적이다.

配給의 量과 質의 構成은 配給對象者의 職責과 地位, 地域, 時期 등의 여러 要素들에 의해 결정된다.

一般勞働者 및 事務員을 비롯하여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被扶養者에서부터 高級관리·당간부에 이르기까지의 食糧配給기준은 <도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主食은 주로 쌀과 옥수수, 서류 등이나 점차 옥수수가 主穀化되어가고 있으며 잡곡의 종류와 그 混合比率은 地域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도시에 비해 지방에서 잡곡이 더 많은 편이다.

그리고 1973년부터는 소위 戰時에 대비한 食糧備蓄이라하여 配給時의 2日分을 공제하여 減量配給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各家庭別로는 전시 비상배낭속에 4~5日分の 食량을 자체 비축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食량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970年 11月の 5次黨大會에서는 여성들의 勞力動員과 관련하여 6개년계획기간(1971~76年)에 「밥공장」을 대폭 확장할 것을 決定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평양을 비롯한 주요도시에는 主食物을 加工하는 「밥공장」과 半製品으로 된 부식물이나 즉거리를 配給하는 奉仕施設, 「찬공장」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農村의 경우, 농민들은 배급제에 의해 食량을 배급받는 것은 아니나 협동농장의 年末決算分配 때 都市勤勞者의 食糧配給量에 準한 食糧(1年分)만을 베풀어 강냉이등 現物로 받기때문에 食糧不足은 마찬가지이다. 협동농장에서는 1年間 生産한 총생산량중에서 政府機關의 義務收買量과 탁아소·유치원 등의 시설비·사료·종자·비료대 농기계임대·농기구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60%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농장원의 勞力工數(1年間 의무적 責任量은 350 工數 이상임)에 따라 現物과 現金을 分配하는 形式을 取하고 있으나 穀物은 農家の 家族數에 해당하는 配給量만큼만 남기고 모두 國家收買로 하고 있다.

대체로 食량배급제는 농촌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1년분 食량을 갖고 먹다보면 다음해 농번기가 될 때쯤부터

는 식량이 떨어져 協同農場에서 「貸與穀」을 얻어 보충하고는 年
 末 分配時 冼아나가는 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北韓當局
 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9년부터는 食糧을 1年分 한목에 주
 지 않고 15일에 1회씩 配給式으로 支給하든가, 農家에서 갖고 있
 는 벼나 강냉이를 정미소에서 精하든가 빠줄 때, 15日分~20日
 分만을 해줌으로써 한꺼번에 많은 식량을 소비할 수 없도록 統制
 하고, 일체 貸與穀支給을 禁止해 버렸다.

北韓에서 농민들에게 까지 이처럼 식량을 配給式으로 통제하는 것
 은 한마디로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착취하고 식량을 社會統制의 기
 본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의 非人間的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 표 13 >

북한의 식량배급 기준

구 분	배 급 량 (g / 1人 / 1일)	잡곡혼합비율 (백미 : 잡곡)
당간부, 고급관료	700	10 : 0 (대도시)
일반노동자, 사무원	600	2 : 8 (5 : 5)
중노동자	700	3 : 7 (5 : 5)
일반군인	700	2 : 8
특수군인 (경보병)	800	3 : 7
대학생	600	2 : 8 (5 : 5)
고등중학생	500	2 : 8 (5 : 5)
인민학교 학생	400	2 : 8 (5 : 5)
피부양자	300	가족에 준함.

4) 住生活

먼저 住居樣式에 있어서 한국은 各自의 個性과 취향, 그리고 經濟力에 따라 서양적인 文化生活과 동양적인 정서생활을 調和시키면서 개선·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北韓은 勞動力의 集團收容과 日常生活의 감시를 目的으로 주민들의 生活環境을 集團·密集化시켜 都市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고 농촌에서는 集團聚落化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住宅에 대한 개인소유란 있을 수 없으며 개인에 의한 건축도 일체 認定되지 않고 있다. 다만, 階層과 職位에 따라 規格화된 여러 等級의 住宅을 賃貸形式으로 배당받아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 <도표 14 參照>.

< 표 14 >

북한의 주택사정 (평양시 기준)

주 택 형	가 옥 구 조	입 주 자
독립고급주택	○ 독립식 단층 또는 2층 ○ 정원 ○ 냉온방장치 ○ 수세식변소	○ 당 및 정무원 부부장 급 이상
신형 고층아파트	○ 방 2 ~ 3 개 ○ 목욕탕 및 수세식 변소 ○ 베란다, 냉온수시설	○ 중앙당 과장급 이상 ○ 정무원 국장급 이상 ○ 대학교수 ○ 문예인간부 ○ 기업소 책임자
중급주택 및 신형아파트	○ 방 2, 부엌 1, 창고	○ 중앙기관 지도원 ○ 도급기관 부부장 이상 ○ 교장
일반아파트	○ 방 1 ~ 2 ○ 마루방, 부엌	○ 도급기관 지도원 ○ 기업소 과장급 ○ 시·군급기관 과장급 ○ 교원
농촌문화주택	○ 단층 연립주택 (2 가구) ○ 방 2, 부엌 1, 창고 1	○ 협동농장원
집단공영주택 및 구옥	○ 방 1 ~ 2, 부엌 1 ○ 방 2 ~ 3 개의 농촌기존 구옥	○ 말단 근로대중 ○ 말단 사무원 ○ 변두리 협동농장원

이와같이 北韓의 住生活은 規格화된 集團住居 중심의 소규모아파트형 또는 연립주택형의 集團主義的인 生活樣式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평양을 비롯한 도시에 고층아파트를 지어 集團主義 生活樣式의 強化를 통한 각종 動員과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住宅은 문화생활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단순한 共同管理의 生存空間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農村의 住居樣式도 소위 文化住宅이라는 미명아래 集團農場의 形態에 따라 소규모 聯立住宅化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住生活은 人間的 삶의 空間이라기 보다는 勞動者들의 합숙소와 같은 느낌을 준다.

또한 건설된 주택들은 資材의 不足과 技術의 落後, 그리고 統制政策 등으로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質的 水準 또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데라 수리나 손질도 잘 하지 않는 형편이다.

거의 모든 주택에는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나, 농민과 일반노동자는 1가구에 25촉짜리의 백열등 1등만이 허용되며 기타 전기장치 등은 제한하고 있다. 도시의 주요도로변에는 상수도과 중앙난방장치가 완비된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섰으나 이 아파트건물 뒤에는 전통적인 소규모 가옥들이 있어 도로변의 아파트는 생활편의보다도 선전과 전시효과와 성격이 강하며 화장실도 대개의 경우 層別共同構

造이다.

農村地域의 간선도로변의 可視圈地域에 새로이 建設된 현대적인 住居施設들도 역시 대외적인 선전용인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展示 效果的인 주택정책 裏面에는 住宅難이 매우 심각하여 일반주민들은 주택을 배정받기가 어려워 1세대용 아파트에 2세대가 거주하는가 하면 신혼부부들은 주택배정이 안돼 결혼후 2~3年 각기 독신자 합숙소에서 별거하는 형편이다.

5) 衣生活

의상의 形態에 있어서 韓國은 活動하기에 편한 洋服과 洋裝이 一般化되어 있으나 아직도 農村의 부녀자들이나 노인층에서는 韓服을 즐겨 입는다. 특히 명절에는 도시나 농촌할 것 없이 대부분 다양하고 개성에 맞는 전통적인 한복을 많이 입고 있다.

한편 北韓에서는 의복도 식량과 마찬가지로 배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個人割當量은 역시 직책과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地位와 身分의 높고 낮음에 따라 배급받는 의복의 종류와 질이 달라진다. 織物生産量의 절대량 부족으로 配給期間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品貴狀態를 이루고 있고 質 또한 粗惡하여 여러가지 의복을 자유로이 해 입을 수 없는 형편이다. 農村의 주민들과 북한여성들의 대부분은 작업복을 입고 있으며 女性들은 특별한 경우 한복을 입는 경우가 많으나, 도시 지역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시에는 남성양복의 모양, 학생과 군인의 제복, 그리고 공장노동자들의 옷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고 있어 외부세계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경색된 60년대에는 의복의 스타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70年代 南北對話 以後부터 女性의 복장등에서 색상과 디자인의 다양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衣生活까지도 社會的 身分에 따라 階級差別式으로 공급하는 配給制에 의한 統制를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평은 높아가고 있으며, 옷차림만 보아도 身分을 알 수 있는 세상으로 되었다.

北韓의 엄격한 의복의 배급제의 主原因은 직물생산을 비롯한 경공업부문이 투자의 우선순위가 낮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北韓은 基本的인 의식주생활까지도 해결못한다는 주민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최근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을 부르짖고 있다. 이에 따라 北韓은 그들이 독창적으로 개발했다는 소위 주체화학섬유인 비날론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5억메타의 천고지를 앞당겨 점령하여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 하도록 생산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기본적인 衣生活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북한과 한국을 비교해 볼 때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 餘暇管理

餘暇生活의 量과 質은 삶의 質 全體를 결정하는 중요한 要素중의 하나이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또한 그 餘暇에 즐겁고 보람있는 휴식을 취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여가생활의 質的 水準은 그 사회의 經濟 및 文化生活의 質的 水準을 나타낸다.

남북한 주민들의 勞動時間과 '레저', 趣味와 娛樂의 實態는 서로 根本的인 차이를 안고 있다. 이는 물론 社會構成原理 내지 社會經濟構造의 必然的인 結果라고 생각되지만 그 보다도 북한의 경제발전단계로서는 아직도 '레저'를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있는」 단계가 못된다고 하겠다.

한국에서는 職業이라든가 所得水準, 教育水準 등에 따라 각기 選擇基準이 다르고 또 각자의 個性과 生活環境에 따라 日課와 趣味·娛樂이 다양하게 分化된다.

반면 북한은 당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도록 전주민의 思考를 革命化하려는 努力이 餘暇活動에도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日課 이외의 대부분의 활동은 단체, 당 또는 정권기관의 과견원들에 의해 감독·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의 餘暇實態를 살펴보면, 우선 자기의 時間, 즉 個人的 私生活은 있을 수 없고 틀에 짜여진 集團主義的 日課와 각종 社會團體의 集團的인 活動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全住民이 組織化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肉體 및 精神 勞動分野를 막론하고 매일 완수해야 할 作業責任量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日課를 착오없이 진

행시켜야만 비판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緊張과 強迫觀念에 사로잡혀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적 自由時間을 가지고 生活을 즐긴다는 것은 애초부터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일반농민과 노동자들은 농장과 직장의 휴일만이 자유시간을 가질수 있고, 그나마 사회적 단체활동에 소비해야 하며, 市·郡界를 벗어나려면 여행허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自由旅行은 생각할 수 없으며 혁명투쟁에 관계된 박물관이나 사적지를 집단으로 방문하는 것만이 그들의 대중적 여가활동이다.

오락 및 정휴양시설은 정권기관, 당, 또는 지방기업소의 간부들만에 의해 이용되며 그 체재비용의 70%를 이용자가 부담한다.

스포츠생활에 있어서도 개인의 취미나 여가생활의 일부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국가의 강력한 관리하에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과 군사적 의미를 띠는 집단적 체육활동이 대부분이다.

또한 영화와 연극도 하나의 綜合藝術로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매체로서 공산주의사상과 김일성유일사상을 고취시키는데 가장 효과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감상과 연극관람도 주민들의 취미나 오락으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학습의 연장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대중문화가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줌으로써 쌓였던 피로를 잊고 情緒를 순화하도록 도모하는 機能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로움과 피로를 더해주는 逆機能을 한다고 하겠다.

라. 社會生活의 類型과 方式

1) 人口管理

8.15 해방 당시 남북한의 總人口는 약 2,900 만명 (해외거주자 약 350 만명 包含) 으로 추산되는데 1946 년 현재 한국은 1,937 만명, 북한은 926 만명으로 분리되었었다. 그후 한국의 인구는 계속 증가를 거듭하여 1983 년 7월말 현재로 4,000 만을 돌파하였고, 북한은 월남민과 6.25 로 인한 大規模 人口移動으로 1953 년 경에는 人口의 絶對數가 839 만명으로 감소된 적도 있었으나 그 후 지속적인 增加로 1982年 現在 1,849 만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와 같이 人口規模面에서 韓國은 北韓보다 2倍 以上の 水準을 유지하고 있어 人口密度面에서는 韓國이 過密現象을 보이고 있다 (表 15 參照).

<表 15 >

南北韓人口 構成比

區 分	韓 國 ('83.7.30 現在)	北 韓 ('82年基準)
總 人 口 (만명)	4,000	1,849
性 比 (남)	101.85	98.62
增 加 率 (%)	1.57	2.23
人 口 密 度 (명 / km ²)	404	149

그리고 男女構成比面에서는 韓國은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약간 적은 반면, 북한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구증가율에 있어서는 한국의 1.57%에 비해 북한은 2.23%로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 높은 人口增加率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人口資源이 빈약한 상태에 있어 출산억제 정책을 74년 이전까지는 쓰지 않았으며 그후에도 출산억제를 3子女부터 하는 등 강력히 추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地域別 人口分布面에서 보면 한국은 지역적 偏在現象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대화 추진과정에서 都市化에 따른 人口集中現象이라 볼 수 있으나 앞으로 地域間的 均衡的인 經濟·社會發展計劃이 시급하다 하겠다.

북한에서는 직업선택,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들의 對內政策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一元化된 統制體制를 유지하기 때문에 韓國과 같이 自然的인 人口移動은 불가능하다.

2) 階層構造와 社會的 移動性

가) 社會階層構造의 性格

社會構成員 全部가 모든 價値나 資源의 配分에 있어 完全한 平等을 누리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한 사회의 구성원은 그들이 그 사회에서 차지하는 社會的 地位에 따라 특정한 社會階層에 소속된다. 이러한 사회계층은 上下로 序列化되는데 이와 같은 配列을 階層構造라고 부른다.

階層이란 社會全體에 의하여 평가된 序列構造이며, 이는 흔히 階層構成員들에게 歸屬意識을 부여한다.

사회에 따라서는 계층구분이 분명하고 엄격한 사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회도 있다. 또 家門과 成分에 의하여 계층이 구분지어 지는가 하면, 구성원의 노력과 성취에 의하여 계층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분단후 남북한사회는 서로 다른 토양에서 구축된 까닭에 양자의 社會階層構造는 그 기본적인 성격에서부터 異質的이다. (표 16 參照)

< 表 16 >

南北韓社會階層構造 比較

區 分	韓 國	北 韓
기 본 성 격	다원적, 개방적, 성취적, 유등적	일원적, 폐쇄적, 귀속적, 고정적
기 준	직업, 수입, 교육, 소유, 성취	성분, 당성
분 류	도시, 농촌 상 중 하	핵심군중 기본군중(등요계층) 복잡한 군중(적대계층)
사회적효과	자아실현, 능률의 논리	당에의 충성, 복종의 논리

韓國社會의 계층구조에 있어서 사회적 變數는 收入·教育·職業 등 복합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가문과 출신지역, 종교등에 관계없이 각자의 노력과 능력, 소질과 취향 등에 따라 職業選擇이 可能하며 職業역시 다양하게 分化되어 있어 어느 것이 좋고 나쁜지를 구분하기조차 어렵다.

또한 政治的 要因이 階層決定의 주요 變數로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일정계층을 制度的으로 特權化시키거나 疎外化시키는 例도 없다.

北韓社會의 경우에는 계층분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變數는 黨性 (政治性) 내지 프롤레타리아性 (階級性)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政治的 階層分化和 社會的 階層分화가 그 내용상 收斂하는 것으로, 北韓社會에 있어 政治的 評價가 갖는 우월적 의미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北韓의 계층구조는 出身成分이라는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一元的, 歸屬的, 固定的, 閉鎖的 性格을 띠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北韓社會에서는 個人이 아무리 能力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계층간의 移動은 거의 불가능하다.

要約하면, 韓國의 경우 階層區分의 基準과 性格이 다양하여 계층을 명확히 분류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韓國의 계층분류는 그 限界가 不分明하여 上·中·下로 개략적으로 規定하게 되나, 이것도 매우 流動的이어서 교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는 <表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3階層으로 구분되며 公民證發給과 동시에 黨에서 成分에 따라 階層을 規定한다.

北韓은 지난 38년 동안 「階級路線」과 「階級教養」을 앞세웠으며 「中央黨集中指導」, 「成分調查事業」, 「住民了解事業」, 「黨證再交付事業」, 그리고 「公民證對照事業」등 지속적인 成分調查로 그들 체제에 同調하지 않는 주민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制裁·監視·教養하는 계급정책을 강화해 왔다.

<表 17 >

北韓의 階級構造

成分階層	對 象	人口構成	待 遇
핵심계층	○혁명전사 유가족, 피살“진사자” 가족 ○당·행정간부 가족, 군간부 가족	28 %	○당·행정·군간부등용 ○타계층과 분리특혜조치 (진학, 승진, 배급, 주거, 의료등)
동요계층	○일반노동자, 농민가족 ○일반사무원가족	45 %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진출, 최저생활보장 ○극소수 핵심계층으로 승격
적대계층	○지주, 자본가 가족 일제하 공직자, 종교인가족 ○월남, 부역자, 포로가족 ○숙청, 범법자가족	27 %	○유해, 중노동에 증사 ○입학, 진학, 입당, 봉쇄 탄압 ○제재, 감시, 교양, 포섭 대상으로 구분조치.

나) 階層間的 社會移動

이상에서 개관해 본 바와 같이 北韓은 全住民을 그 出身成分과 과거의 經歷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階層을 細分化하고 각 階層에 따라 差別的인 政策을 쓰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의 이른바 「社會主義憲法」에서까지 明文化하고 있는 無階級社會란 虛構的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서는 계급적 대립과 人間에 의한 人間の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
어졌다」(헌법 6조)는 그들의 공言과는 반대로 북한에는 어느 사
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세분화된 階級과 계급적 差別이 엄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이와 같은 계층구조는 社會的 移動性도 심히 제약
되어 있다.

韓國의 경우, 社會的 移動性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業績主義·普
遍主義的 價値가 人間能力評價의 기준으로 定着되고 있으며, 그간
산업화에 의하여 진행된 우리사회의 構造的 分化는 社會的 移動性
을 높이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個人別·集團別·世
代別 社會的 移動性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① 歸屬主義에 입각한 階級構造的 硬直性은
사회적 이동성을 극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② 當世代的 社會的 移動性은 거의 용인되기 어렵다. 그러나
③ 後世代的 부분적인 社會的 移動性은 인정되고 특히 技術分野
종사자의 경우 그 정도가 높다.

④ 이는 새 世代的 體制同調의 行爲를 자극하여 機會主義的인
人間化를 촉진할 우려가 크다. ⑤ 뿐만 아니라 全人口의 大部分
을 차지하는 社會的 疎外集團에 대한 政權의 무자비한 계급정책은
오히려 이들의 「反體制感」을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나 이는 組
織化된 行動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體制內의 葛藤要因으
로 내연화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북한사회의 現實은 그들이 내세우는 平等의 理念과는 아
랑곳없이 날이 갈 수록 不平等과 階級的 격차가 硬直化되면서 이

러한 계층간의 격차의식이 갖가지 心理的 不滿과 社會的 不安의 근원이 되고 있다.

3) 社會統制와 生活關係

「統制」란 어떤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部分을 그 社會的 理念에 부합되게끔 制約하는 制度的 裝置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統制는 결국 個人으로 부터 忠誠心, 順應, 追從 및 승락을 획득하려는 抑制力의 行使와 그 手段을 의미한다.

모든 社會는 個人이나 集團을 통제하기 위한 規範·規則·秩序 등 제도적 장치들을 가지는 바 이를 통털어 社會統制構造라 한다. 이러한 의미의 統制構造는 社會마다 다르므로 그 차이로 인하여 社會生活의 樣相이 달라진다.

<表 18 >

南北韓의 社會統制

區 分	韓 國	北 韓
성 격	양심에 의한 자율적 통제 전통적 규범에 의한 통제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통제	당에 의한 타율적 통제 사회주의적 집단규범에 의한 통제 권력과 체제존속을 위한
통제수단	타협에 의한 통제 법에 의한 통제 여론에 의한 통제 대인관계에 의한 통제	사상적 통제 당의 명령과 지시 강제적 통제 상호감시 조직에 의한 통제 각종 배급제도에 의한 통제

<도표 1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統制構造의 性格은 남북한간에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社會統制의 性格은 그것을 對人關係에서 보면 傳統的인 規範과 良心에 의한 自制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國家的 次元에서는 人間的 基本權과 自由를 보장하기 위한 統制를 그 기본적 성격으로 한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 社會統制는 전통적인 秩序規範을 저버리고 그들의 體制와 權力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적 統制를 강조하고 社會主義的 規範에 따르도록 강요하며, 그 규범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黨的인 統制機能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統制手段에 있어서도 政治·經濟·社會·文化 등에 걸친 다양한 통제, 相互批判과 相互監視, 5戶擔當制와 그리고 각종 組織生活을 통한 統制, 黨의 직접적인 命令과 指令등에 의한 統制, 각종 사회운동에 의한 통제 등 여러가지가 있다.

심지어 한 가정안에서도 서로 감시하고 감독하게 하여 그들 規範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하며, 여러 類型의 學習班, 討論會 등을 통한 集團的 統制方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공포의 상태에서 言行을 삼가고 不安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韓國의 경우에는 對人關係에서 전통적으로 傳承된 規範과 서로 습득된 규범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통제가 作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社會的 衝突이나 葛藤이 야기될 때에는 當事者가 서로 타협하여 갈등을 해소하며, 타협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갈등은 公正한 法的 節次에 의하여 解決하는 方式을 취한다.

그리고 輿論이 중요한 統制裝置의 하나로 作用한다. 여론에 의한 통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특정한 규범 그 자체를 絶對視한다거나 國家權力과 政治權力의 介入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一般의 常識과 衆知의 優位性을 믿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北韓에서는 社會主義 規範을 절대시하며 權力과 體制의 존속을 급선무로 하기 때문에 특정의 행동이나 動機와 狀況에 관계없이 그들이 규정하는 規範에 맹종하도록 強制的인 통제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북한은 經濟的 生活面에 있어서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원리에 따라 철저한 住民統制를 강화하고, 나아가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들은 經濟生活의 통제를 위하여 生活手段의 私的 所有를 일체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고, 입고, 쓰며 사는데 必要的 物資와 조건을 黨이 장악하고 그 配分을 엄격한 配給統制下에서 실시하여 주민들을 黨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類型의 통제를 圓滑히 하기 위하여 北韓 주민들을 각종의 組織속에다 묶어 두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마. 文化藝術活動

1) 文藝活動의 基本方向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文學·藝術은 자유롭고도 순수한 內心の 欲求에 의한 美的 創造와 價値의 追求에 그 目的을 두고 있다. 韓國의 文藝活動은 이와 같은 一般的 目的을 추구하면서 우

리 민족의 傳統的인 文化藝術을 繼承·發展시켜 文藝中興을 이룩하고 國民들의 生活을 보다 정서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韓國의 文藝政策 역시 전통문화의 繼承·發展과 함께 外國文化의 選別的 受容을 통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文化傳統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目標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文藝活動은 黨政策具現, 共產主義 宣傳, 共產主義的 人間改造, 勞動意欲 提高와 金日成家系 偶像化 등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文藝政策 또한 선전과 선동의 수단으로서 文學과 藝術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基本內容과 方向은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의 창작방법을 구현하고 「黨性·階級性·人民性」의 원칙을 고수하며 「思想革命과 文化革命」遂行的 強力한 政治的 手段으로서의 역할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일성은 1970年 11月 第5次 黨大會의 사업총화보고에서 「文學藝術은 勞動者들을 共產主義的으로 教育하여 온 社會를 革命化, 勞動階級化하는데 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共產主義 世界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革命的인 작품을 더 많이 創作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作家·藝術人들은 共產政權의 侍女가 되어 「革命的 作品」을 통하여 「낡은 思想과 復古主義的 生活樣式이 발 붙일 수 있는 사소한 틈」마저도 없애는데 專念해야 한다.

2) 創作活動

韓國에서 作家·藝術人들은 원칙적으로 創作活動에 있어서 여하한 形態의 간섭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政府의 文藝中興政策

에 따라 創作活動에 必要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創作意欲의 고취와 신일발굴을 위한 藝術人賞을 비롯한 각종 文化藝術賞을 마련하여 창작활동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의 작가·예술인들은 自由職業人이 아니라 共產政權에 고용된 선전요원으로 存在하며, 이 때문에 이들은 철저한 黨의 統制下에 計劃的인 作品活動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創作活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社會主義憲法」 第45條에 規定되어 있는 이른바 「民族的形式에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은 革命的인 것이어야 한다」는 슬로건 밑에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입각한 묘사방법이 그 基調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김일성의 조작된 業績과 德性, 革命傳統, 社會主義建設, 6.25動亂, 그리고 階級鬭爭을 위한 教養, 黨政策宣傳을 위한 사상성의 구현 등 순수예술의 追求보다는 目的意識的 思想教養의 表現으로 일괄되어 있다.

文學藝術作品 創作에서의 主題別 比率을 살펴보면 1964年 11月 「文學·藝術部門 일꾼들」앞에서 한 김일성의 「教示」에 따라 社會主義 建設과 革命鬭爭에 關한 것을 각각 5對5로 配定하는 것을 原則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60年代 後半期부터는 金日成 個人에 關한 것과 「革命傳統」을 內容으로 하는 주제선정에 더 큰 比重을 두고 있다. 즉 北韓의 文藝活動은 美의 創造보다는 黨政策의 宣傳 선동에, 創作보다는 模造에, 藝術性이 아니라 思想的 表現에 主力하고 있다.

「社會主義的 事實主義」 創作方法이란 1934年 소련에서 일어난 文學 및 藝術의 創作方法으로 共產圈 文學藝術創作의 基本원칙이며 方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創作方法에 의하면 作品속에 나타나는 事件의 過去나 現在를 묘사하되 事件自體의 眞實이 아니라 創作方法의 하나인 虛構性을 利用하여 반드시 階級的이며 革命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作家·藝術人들은 「作品 製作을 現地에서 한다」는 原則에 따라 工場·鑛山·農漁村·建設場 등에서 直接 일하면서 一般 大衆을 黨의 주위에 집결시키는 선동원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셋째, 모든 作家·藝術人들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에 망라시켜 團體的 壓力을 加함으로써 創作生活을 統制·監視하고 있다.

그들은 集團的 創作을 義務化하고 복수의 人員에 의한 共同製作을 위주로 하여 個人의 의도가 아닌 集團, 즉 黨의 의도가 反映되도록 하는 동시에 모든 盟員들에게 主題別 作品製作 責任量이 定해져 있어 主題選擇權마저 없는 것이다.

넷째, 北韓의 文藝活動에서 보다 重要的 것은 소위 「藝術小組」의 운영이다.

「藝術小組」는 地域別이나 工場,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生産職場別, 部隊別, 學校別, 機關別로 광범위하게 組織되어 있다.

이들 小組들은 作業中 休息時間을 利用하여 음악·무용등의 공연활동을 벌리며 이러한 공연활동을 통해 김일성우상화와 黨政策을 宣傳하고 勞動意欲을 고취시키는 宣傳活動을 한다.

4. 社會福祉管理의 比較

가. 保健醫療

(1) 保護政策

分斷以來 南北韓은 여타 分野와 마찬가지로 保健醫療制度面에서도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北韓 保健政策의 基礎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學說을 北韓實情에 맞게 「創造的으로 적용한」 노동당의 政策에 있다고 주장하고 1972年의 社會主義憲法 第48條에 「國家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노동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고 基本的인 保健政策을 밝혔다. 따라서 北韓의 保健政策에 있어서 基本原則은 「無償治療制」와 「豫防醫學的 方針」이라고 할 수 있다.

北韓이 保健分野에 本格的으로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1960年 이후이다.

6.25 動亂 이전과 前後復舊期間에는 保健部門이 등한시되어 오다가 1958年 個人商工業의 廢止와 함께 民間醫療나 個人醫療·民間의 製藥業이나 賣藥業이 일체 禁止된 이후 北韓에서는 國營體系의 醫療機關과 保健分野組織을 새로이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千里馬運動으로 展開된 過重한 人民經濟計劃을 수행함에 있어 질병으로 인한 勞動力의 損失을 防止하기 위해서도 保健事業에 대한 力量集中이 불가피하게 제기되었다.

北韓이 내세우고 있는 「豫防醫學的 方針」, 「無償治療制」, 「醫師擔當區域制」, 「東醫學의 育成」 등의 施策이 나오게 된 현실적 배

경을 살펴보면 그들이 保健政策上에 나타난 모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北韓은 休戰後 계속된 凶作으로 주민들의 영양실조로 인한 질병만연, 빈약한 醫療施設 등의 事情으로 豫防衛生의 基本方針이 豫防治療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保健管理措置는 주민들의 體力向上에 있기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勞動力 喪失을 미연에 豫防하려는데 根本目的이 있었고, 당시 醫師·간호원 등 醫療要員이 절대 부족한 여건하에서 어쩔수 없이 취해진 조치인 것이다.

둘째, 北韓이 「制度的 優越性」이라고 宣傳하는 無償治療制는 표면상으로는 노동자와 事務員들이 병원 또는 진료소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外樣的 形式일뿐 실제로는 勞動者와 農民이 번 돈으로 病院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有償이나 마찬가지이다. 農村 里에 설치된 「里人民病院」이나 「里診療所」는 그 設立費用과 運營費를 里協同農場의 收入中 10% 控除하고 있는 文化費 蓄積金에서 支出하고 있고, 工場의 「産業病院」이나 「工場診療所」는 그 工場 勞動者들이 번 利益金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실제적으로 國家가 유일한 企業主이며 使用主로서 國民을 賃賃金으로 雇傭하고 있는 社會主義體制에서는 低賃金으로 生活하는 勤勞者를 상대로 醫療施設을 獨占하고 있는 國家가 治療費를 받을 수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北韓에서의 「無償治療制」는 교도소에 수감된 복역수들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는 것과는 같은 無意味한 것이다. 醫藥品不足이 심하고 醫療機關 從事者들의 官僚主義的 不條理現象이 만연된

北韓社會에서 「無償治療制」는 社會的 身分에 따른 階級差別式 治療制와 藥品의 暗去來에 의한 治療등 不作用을 낳고 있다.

세째, 北韓에서 實施되는 「醫師擔當區域制」는 醫師들이 金요일까지는 病院에서 일하고 토요일 오전에 한하여 擔當구역에 나가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제도인데, 醫師 1人當 擔當區域은 대개 4~5 個 作業班 규모로서 對象人員이 200~250 名 정도로 되어있다.

주로 農村에서 실시되고 있는 醫師담당구역제는 住民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조직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이 病院을 찾게 됨으로써 초래되는 勞動時間의 損失을 막아보려는데 目的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에게는 별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醫師와 주민간의 不條理의 溫床이 되고 있다.

넷째, 「東醫學의 育成」에 의한 민간요법의 개발은 北韓의 醫療機關들이 그 施設이 나후할 뿐만 아니라 醫藥品이 不足하여 患者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으므로 민간요법과 같은 前近代의 治療方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實情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韓國의 保健醫療制度는 公共部門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民間部門이 주도하는 自由市場機能에 크게 依存하는 體系로 發展하여 왔다.

經濟開發의 궁극적인 目的을 國民의 福祉向上에 두어, 社會福祉의 重要한 要素로서 健康한 國民生活와 快適한 生活環境의 造成을 重要한 問題로 등장시키면서, 1970 年代에 이르러 韓國政府는 國民福祉施策에 역점을 두고 全國民에게 저렴한 價格의 醫療供給을 위하여 保健의료망의 擴充과 保健醫療體系開發을 시도하여 왔다.

4 次에 걸친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이 成功的으로 實施되면서 社會開

發部門에 本格的으로 投資하기에 이르렀으며, 特히 1977年부터 시행한 醫療保險 및 醫療保護制度는 시행후 繼續的인 發展과 適用擴大로 5次計劃의 目標年度인 1986년에는 全人口의 65.7%, 1991년에는 95.0%로 全國民의 醫療保障의 惠澤을 받게될 전망이다.

韓國은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期間中の 計劃을 土臺로 볼 때 80年代의 保健醫療施策의 方向은 ① 地域間 醫療資源 分布의 不均衡을 시정하기 위한 都市零細民과 農漁村에 대한 低廉한 醫療制度의 開發·擴充 ② 疾病管理의 強化와 母子保健의 向上등 豫防保健政策의 強化 ③ 環境施設의 擴充과 公害防止에 의한 快適한 國民의 生活環境의 開發·保全 ④ 醫療施惠의 擴大·均霑과 豫防保健의 管理 強化 및 生活環境의 改善 등에 役점을 두게 될 것이다.

北韓은 그들의 保健政策을 앞으로 ① 無償治療制度의 鞏固發展 ② 豫防醫學的 方針 관철 ③ 醫師擔當區域制 實施 ④ 사람들의 生命保護와 健康增進 등에 役점을 들 것으로 보이나 經濟難으로 住民들의 生活向上 展望이 不確實하고 醫療機關들의 官僚主義的 침체성과 醫藥品 不足의 解決展望이 불투명하여 그 장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2) 保健醫療網

韓國의 醫療網은 現在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療醫機關으로 구성되는데 公共醫療部門은 保健社會部 管轄機關으로 國·公立病院, 國立保健研究所등이 있으며, 內務部 管轄機關으로 市·道立病院, 市·道保健研究所, 保健所, 保健支所 등으로 二元的 組織機構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醫療의 大部分이 綜合病院, 專門醫院, 一般醫院 등의 民

間部門의 醫療機關에 의해 擔當되어 왔으나, 社會開發部門에의 本格的인 投資에 따라 醫療保障策의 일환으로 保健醫療網의 體系化가 本格化되고 있다.

모든 國民에게 적정한 의료공급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절대적 우위에 있는 民間部門의 依存度를 公共醫療部門에서 分擔할 수 있도록 公共保健醫療部門을 大幅 強化·擴大하여 未充足醫療需要를 充當하면서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均衡있는 連結이 되도록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하고 있다.

公共部門의 地域保健活動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擔當하고 있는 保健所(各區, 市·郡 設置)와 保健支所(郡保健所의 支所로서 面單位에 設置)는 地域住民의 保健管理業務와 診療機能을 수행하고 있는데, 1982年末 現在 214個 保健所와 1,321個 保健支所가 設置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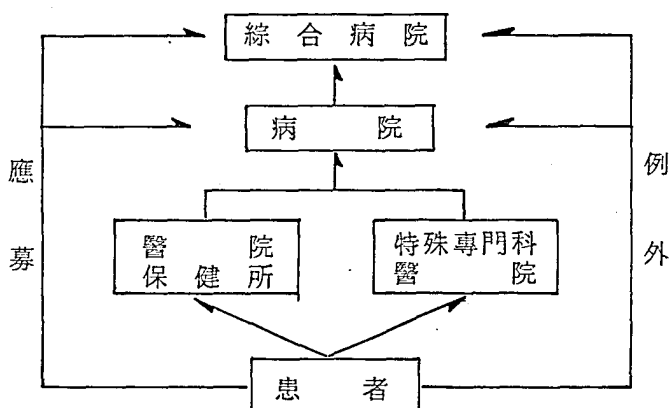
또한 公共醫療에 있어서 中추적 位置에 있으며 이들 保健所 및 保健支所의 診療活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後送病院으로서의 役割을 擔當하는 市·道立病院이 있다. 市·道立病院은 設立主體에 따라 市立, 道立, 郡立 등이 있으며 모두 44個所가 設置되어 있다.

또한 보건에 대한 檢査 및 研究業務를 주르 擔當하고 있는 市道保健研究所가 全國 各 市·道에 1個所씩 設置되어 있다.

이와 같은 醫療網에 의해 農村과 都市 各各의 特殊性에 따라 적절한 醫療傳達體系가 定立되어 있는 바 그 內容을 도표화 하던 <表 19>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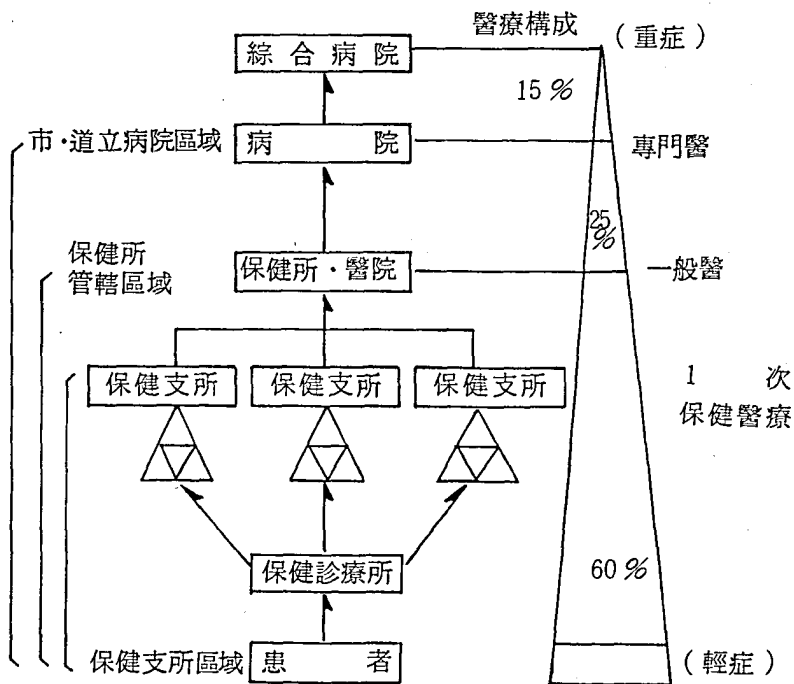
<表 19-1 >

都市型 醫療傳達體系



<表 19-2 >

農村型醫療傳達體系



한편 北韓의 醫療行政組織을 살펴보면, 保健行政의 중추기관으로서 중앙에 「보건부」가 組織되어 있고 道(直割市) 단위에 道(직할시) 行政委員會내에 「保健處」가 있으며 市(區域)·郡 단위에 市(區域)·郡 行政委員會내에 「保健處」를 配置하고 있다.

또한 衛生防疫을 담당하는 衛生指導委員會가 중앙과 지방에 조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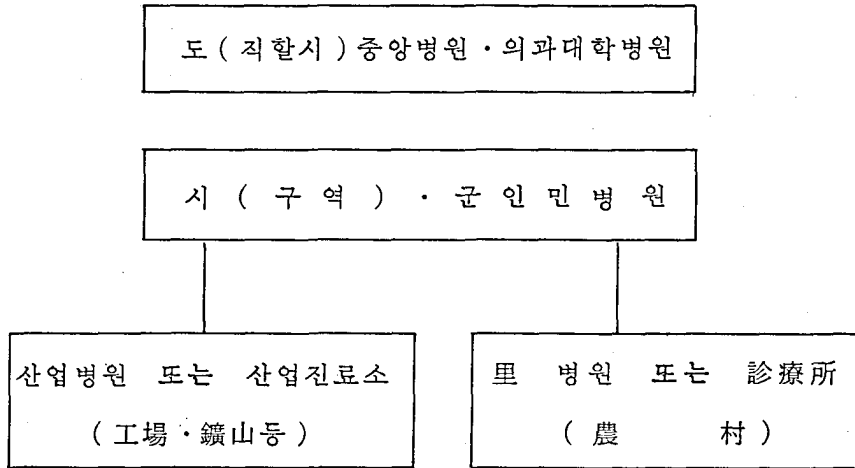
醫療機關의 組織과 運營에 있어서 북한은 중앙에 종합병원으로서 中央病院과 특별시·도인민위원회 소재지에 대학병원과 중앙병원 1個, 市·郡 行政委員會 소재지에 1~2個의 市·郡인민병원과 里 및 노동자구역에 里인민병원 또는 진료소가 1개씩 설치되고 작은 里·洞은 몇개씩 종합하여 1개씩의 인민병원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전문치료예방기관 및 특수병원, 동의치료예방기관, 구급의료기관이 있다.

산업지역에는 산업병원, 산업진료소, 구급소가 있으며, 농촌지역은 지역별 擔當區域制의 원칙이 강조되는 곳으로서 郡所在地區域은 郡病院이 直接 擔當하고 里는 협동농장진료소가 擔當하여 보건위생사업을 추진한다. 北韓의 醫療機關(病院)의 形態 및 組織과 運營은 <表 20> 과 같다.

<表 20>

北韓의 病院體系



3) 醫療人力 및 施設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良質의 醫療施惠를 받으려면 充分한 保健醫療人力의 擴保와 醫療施設의 擴充이 그 기본조건이다.

특히 保健醫療分野에 종사하는 人力은 國民의 健康과 生命을 다루는 重大한 責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所定の 資格을 가진 者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保健醫療人力은 그 養成期間과 費用이 他分野에 비하여 長期이고 高價라는 점이 특수하다.

醫療人力과 施設面에서 人口 1萬名當 醫師數와 病床當 人口數의 指數만을 비교해 보면 北韓은 韓國보다 다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圖表 21> 과 <도표 22> 參照).

北韓當局은 醫師數나 病床數와 같은 統計數字도 政治的 目的에서 造作, 對南優位宣傳에 利用해 왔다는 點을 감안하고 또 高等學校 정도의 教育을 받은 準醫師를 양산하고 있어, 醫師數의 3分の 2가 準醫

師이므로 專門醫制度를 강화하고 있는 韓國에 비해서 醫療의 質面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醫療機關의 施設落後, 醫藥品不足, 민간요법의 近大적 治療方法 사용등이 문제가 있다.

또한 아직도 北韓은 全염병관리와 營養부족에 따른 保健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韓國은 醫學의 進歩에 따른 專門化의 趨勢, 疾病樣相의 變化, 醫療保險의 擴大 등에 의한 醫療需要 增加에 따라 醫療人力의 養成確保와 醫療施設의 擴張 및 醫療裝備의 現代化에 投資를 集中시키고 있다.

< 表 21 >

南北韓의 總病床數 및 病床當人口

區分 年度	病 床 數			病 床 當 人 口	
	韓 國	北 韓	備 考	韓 國	北 韓
1966	12,891	12,824	52,775	2,262	977
1967	14,948	12,824	52,775	2,016	1,003
1968	15,696	13,365	55,000	1,965	989
1969	16,270	14,184	(58,372)	1,939	967
1970	16,538	15,004	61,745	1,901	929
1971	17,506	16,198	(66,660)	1,878	882
1972	16,373	17,394	(71,581)	2,046	842
1973	18,306	18,428	76,496	1,863	815
1974	19,062	23,948	(98,510)	1,820	642
1975	21,242	27,525	(113,273)	1,633	573
1976	22,792(45,044)	34,666	(142,657)	1,573(796)	466
1977	26,535(54,259)	40,025	(164,711)	1,373(672)	414
1978	28,869(58,047)	45,384	(186,765)	1,282(638)	374
1979	33,046(61,617)	50,738	207,528	1,138(610)	343
1980	38,096(65,036)	51,799	(212,292)	983(576)	340

(註)

1. 병상수는 상설의료기관의 입원환자용 침대수로서 한국의 경우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특수병원(결핵, 나병)에 한한 것이며 '76 이후의 ()안의 수치는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한 것임. 북한의 경우는 정부병원, 주요종합병원, 의과대학병원, 도·중앙병원의 침상수임.
2. 비고란은 북한이 발표한 里單位 診療所以上 모든 醫療機關 및 탁야소까지 포함한 침대수이고 ()안은 전후년도 대비치수임.

<表 22>

南北韓人口 1萬名當 醫師數

區分 年度	醫 師 數			人口萬名當 醫師數	
	韓 國	北 韓	備 考	韓 國	北 韓
1966	16,014	6,540	25,351	5.5	5.2
1967	16,942	7,060	27,801	5.6	5.5
1968	18,105	7,580	30,131	5.8	5.7
1969	19,055	8,100	32,461	6.1	5.9
1970	20,306	8,620	34,891	6.5	6.2
1971	22,016	9,140	37,121	6.9	6.4
1972	22,989	9,660	39,451	7.1	6.6
1973	(1) 22,501	10,180	40,579	6.8	6.8
1974	(2) 20,882	10,700	(40,561)	6.2	6.9
1975	22,183	11,620	(40,561)	6.4	7.4
1976	23,447	12,700	(40,561)	6.5	7.8
1977	24,633	13,180	(40,561)	6.8	7.9
1978	26,033	13,660	(3) (40,561)	7.0	8.0
1979	27,518	14,140	(4) (40,285)	7.3	8.1
1980	29,179	14,620	41,217	7.7	8.3

(註)

- (1) 면허갱신증 ('74년)을 위해 사전조치를 취했던 이유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음.
- (2) '74.12.31 이전까지의 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 의료법 부칙 제 2 조 및 동법 시행령규칙 제 59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한 의사수임.
- (3) '73년 발표시와 '79년 발표치를 평균하여 계산한 수치임.
- (4) 최고 인민회의 제 6기 4 차회의 ('80.4.3) 중 “인민보건법” 채택시 발표한 “인구만명당 의사수 23.3명”을 기준으로 역산한 수치임.

나. 社會保障

社會保障은 일반적으로 모든 國民에게 人間다운 最低의 生活을 保障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綜合的 施策이다.

社會保障制度는 나라마다 그 基本原則을 조금씩 달리하는 까닭에 각각 특이한 內容과 形態를 지니나, 궁극적으로 社會構造 最下層을 포함한 모든 國民의 最低生活을 확보하는데 目標를 둔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社會保障은 삶 의 위험에 대처하고 이를 豫防함으로써 緊張·不安을 해소하고, 나아가 社會安定과 國民 大多數의 福祉를 向上시켜 줌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 주는 機能을 한다.

이는 所得再分配 機能을 통하여 最低생활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게 되므로 社會的 連帶意識과 社會秩序의 바탕을 마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韓國은 모든 국민에게 그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責任인 동시에 그것이 國民의 權利로서 인정되고 있는 국가, 즉 福祉國家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第五共和國 憲法은 前文에서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宣言하고 이의 實現을 위해 일련의 社會的 基本權, 특히 人間다운 生活權(第 32條 1項), 社會保障·社會福祉增進을 위한 國家的 努力의 義務(第 32條 2項), 生活無能力者의 國家的 保護(第 32條 3項), 社會·經濟的 方法에 의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保障(第 30條 1項)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憲法上的 保障內容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각종

法的 制度 및 措置가 마련되어 實施中에 있으며, 특히 第五次經濟社會 發展五個年計劃에서 社會開發部門에 投資比率을 높이므로써 實質的인 社會保障機能이 강화되고 있다.

現在 韓國의 社會保障事業의 내용체계는 <표 23>과 같다.

<表 23>

韓國의 社會保障制度

制 度		適 用 對 象
社 會 保 險	醫療保險	○ 100人以上 事業場 ○ 公務員, 學校教職員, 軍人家族 ○ 農·漁村 示範地域
	産業災害補償保險	○ 16人以上 事業場
	연금보험	○ 公務員, 軍人, 私立學校 教職員
	국민복지연금(미실시)	○ 一般國民
	선원보험(미실시)	○ 船員
공 적 부 조	生 活 保 護	거택보호 시설보호 영세민 재해구호
	의료보호	○ 生活保護法, 生活無能力者(1~4號) ○ 社會福祉施設 收容者 ○ 生活保護法上 低所得者(5號) ○ 이재민등
	원호사업	○ 生活保護對象者 ○ 零細民, 準零細民 ○ 원호대상자
	원호사업	○ 상이군경 및 유족, 獨立有功者등
社 會 福 祉 스	아동복지	○ 不遇兒童
	노인복지	○ 65세이상 노인
	부녀복지	○ 불우모자세대, 미혼모등
	장애자복지	○ 심신장애자

한편 北韓에서는 社會保障制度에 대하여 「社會主義社會에서 늑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여 중신토록 또는 오랜 기간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국가부담으로 生活資料와 醫療上 봉사를 保障하여 안정을 도모하는 인민적 시책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社會保障은 일반적으로 소련의 제도를 많이 도입해서 적용했는데 그 범위는 社會保險, 公的扶助, 社會福祉, 公衆衛生 및 醫療, 後方軍人家族에 대한 원호, 기타 義務教育의 실시 등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현행 社會主義憲法은 全般的 無償治療制, 勞動條件의 保障, 休息에 대한 權利(8時間 勞動制, 有給休暇制, 靜休養制 등), 生活無能力者의 物質的 방조를 받을 權利 등과 같은 社會保障에 관한 조항들을 明文化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北韓의 「社會主義憲法」에 明文化된 主要內容은 社會主義制度下에서 實施되는 社會保障에 관한 大原則을 총망라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北韓이 社會主義憲法을 새로이 制定한 底意 자체가 金日成의 1人體制 強化를 法律化하며, 公산주의 체제가 이룩한 성과를 自國內에 確信시킴과 동시에 韓國 國民에게도 이를 誇示할 必要性이 있고, 國際적으로 非常識的인 規程을 삭제하고 그들 체제가 韓國의 社會體制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할 必要性이 있었다는 점에서 社會主義憲法 第3章과 第4章의 社會保障規程은 그 實現性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장식품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북한이 主張하는 8時間勞動制 保障, 靜·休養制度 등의 社會保障制

度는 現實的으로 名目뿐이요 무시된 상태이다. 이것은 無報酬 超過勞動을 要求하는 각종 社會主義 競爭運動이 강요되고 있으며 社會主義勞動法으로 8時間勞動과 8時間學習과 8時間 休息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學習時間을 「일하며 學習한다」는 명목하에 노동시간으로 포함시켜 흡사할 수 있는 法的 口實을 마련하고 있다.

또 하루 480分 노동시간보장이라는 이름으로 勞動休止時間과 作業準備를 위한 勞動과 作業終了後 生活品の 정리와 검사등의 노동시간은 모두 삭제한 순수 生産作業勞動時間만을 따져서 하루 480分 勞動時間을 보장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10時間~16時間 勞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또 北韓의 勞動者 中 80%이상이 都給制勞動者로 고용되고 있기 때문에 8時間 勞動制라는 말은 原則的으로 해당되지도 않는 實情이다. 休暇制나 靜休養制의 경우도 特權層의 獨占物일뿐 一般勞動者의 경우는 영웅칭호나 받았을 때에나 가능한 것으로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存在이다.

實際로 명문뿐인 北韓의 社會保障에 관하여 정권당국은 勤勞大衆에 대하여 그것이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를 한반도의 情勢緊張과 統一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들면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參考: 北韓은 産業災害者, 年老者(男 61세, 女 56세이상)등 社會保障對象者는 原則的으로 最終勤務時 賃金の 70%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월 16원 이하로 縮少 支給하고 있으며 식량도 1日 300g 밖에 지급하지 않아 社會保障對象者를 非勞動人口로 천대하고 있음.)

이상에서 概觀한 南北韓의 社會保障制度에 관한 앞으로의 展望은 다음과 같다.

韓國의 境遇 종래 社會保障制度가 體制維持의 補完的 位置에서 社會開發部門에의 本格的인 投資와 함께 正義로운 福祉社會 建設의 궁극적 目的을 向해 強力하게 機能을 發揮할 것으로 豫상된다. 반면 北韓의 社會保障制度는 體制存立의 명분적 理念 구실을 수행함에 따라서 北韓은 住民에게 최소한의 生存問題를 責任진다는 명분 아래 주민의 政府依存度를 높이고 集團的 動員과 住民統制 등 獨裁手段으로 強力히 活用할 것으로 展望된다.

南北韓에 있어서 社會保障體系를 比較해 보면 <도표 24> 와 같다.

<表 24 >

南北韓의 社會保障體系

가. 사회보험

制度	韓 國		北 韓	
	適 容 對 象	保 險 給 與	適 容 對 象	保 險 給 與
醫療 保險	100人以上事業場 공무원, 학교교직원, 군인가족 農漁村 示範地域	療養給與 분만급여 장례비 건강진단	勤勞者 事務員 扶養家族	치료비 요양비 약재료 해산보조금
災害 補償 保險	16人以上 事業場 勤勞者·遺族	요양·휴양·장례 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일시급여	勤勞者 事務員 遺族	요양등 일시적 노동력상실 보조강제보조금
年金 保險	公務員 軍人 私立學校 教職員		勤勞者 事務員 遺族	폐질연환금 유가족환금 유가족보조금 양로원환금
* 한국은 國民福祉年金과 船員保險에 관한 法的制度를 마련했으나 2次에 걸쳐 실시 연기				

나. 공적부조

制 度	韓 國		北 韓	
	適容對象	保障內容	適容對象	保障內容
생활보호 (거택시설보호, 영세민, 재해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보호법 생활무능력자(1-4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활보호법상 저소득자(5호) ○이재민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곡지급, 연료비, 교육비 ○필수생계비 교육비 ○생계비보조 교육비보조 ○무상진료 장례비 및 위로금 ○양곡 및 생계비 주택복구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유족, 월북자 ○인민군전사 제대군인 ○무의탁노령자 	
의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준영세민 ○원호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료진료 및 진료비보조 	<p>* 의료보험내용과 同 (보험과 보호의 구분이 없음)</p>	
원호보호 원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이군경 및 유족 ○독립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 및 생계비지원 ○교육비보조 ○취업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대군인 및 영예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비지급 ○교육보호 ○유자녀학원

다. 사회복지 서비스

制度	韓 國		北 韓	
	適容對象者	內 容	適容對象者	內 容
아 동 복 지	○일반아동 (18 세미 만) ○불우아동	○어린이날 행사, 아동전용 (휴양) 시설 설치, 아동 회관, 어린이놀이터 ○아동상담지도, 어린이집 (탁아소 시설운영), 거택 보호, 시설수용보호, 위탁 보호, 심신장애아보호	○만 3 세 이하 ○만 6 세미만 ○만 6 세 - 16세 ○고아	○탁아소 유아상 담 ○유치원 ○기술의 무교육 ○애육원 초등학교
노 인 복 지	○무의탁노인 (65 세이상)	○노령연금제 (부분적 사항) ○생활보호 (생계비지원) 의료보장, 경노우대제도	○무의무탁노 인 (남자 60 세 이상 여자 55 세 이상)	○양로원 운영 ○연로연금
부 녀 복 지	○가출 및 윤락여성 ○영세미망인 ○일반여성	○직업보도, 부녀상담, 모자 보건시설 운영 ○부녀새마을사업 ○부녀직업훈련	○일반여성	○여성상 담소 산원
심 복 신 장 애 자 지	○지체부자유자 ○정신장애자 (청각, 언어, 정신·정박) ○시각장애자	○장애연금 ○생활보호 ○의료보호 ○시설보호 ○영세장애자 ○보장구 지급	○맹아 및 농아	○맹농아 학교운 영 ○양생원

5. 北韓의 社會問題

가. 社會的 逸脫行爲

社會文化 生活은 반복적 持續과 力動的 創造, 그리고 理想的 目標와 現實的 條件 등 諸側面의 均衡으로 이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側面은 항상 相互補完 내지 中첩관계에 의하여 調和的으로 並存하는 것이 아니라 歷史的 變動과 더불어 不均衡이나 不一致의 樣相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近代歷史의 社會變動은 觀念的으로 생각하는 理想社會의 經驗的으로 展開되는 現實社會 사이에 懸隔한 편차가 內在한다는 點을 부각시켜 주었다. 이러한 편차는 특히 社會的 逸脫問題에 있어서 더욱 그러한 것이다. 事實上 地球上에서 가장 理想的인 社會의 實現을 장담하고 있는 共產主義 社會에서 이러한 편차가 더욱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例컨대 犯罪, 少年非行을 비롯하여 反抗運動, 人間疎外, 官僚主義, 機會主義, 브르조아思想, 宗派主義, 家族主義 등이 公산사회에서 더 심각한 現實的 社會問題로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北韓共產主義者들의 허황된 선전에도 불구하고 北韓社會를 풍미하고 있는 대표적 例이다.

北韓社會에서 빈발하고 있는 犯罪類型은 ① 政治犯(反黨, 反革命行爲, 金日成·金正日父子 權威毀損, 脫出犯, 思想不純 등), ② 經濟犯(共產財産의 橫領, 糧穀暗去來 및 橫領, 品貴商品의 不正流出, 物品構入時 價格操作, 定量未達 出庫, 減量販賣, 不正計量器 使用), ③

③ 人身殺害犯(暴力, 殺人, 強姦, 姦通), ④ 社會犯罪(강패, 소매치기, 강도, 절도, 사기, 협잡, 방화) 등으로 大別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각종 犯罪등 社會逸脫에 관한 理論展開에 있어서 그 原因을 그들의 社會體制나 制度에서 연유한 것이라 보지 않고 그것을 공산사회의 「外部」에 그 責任을 전가시키려는 입장을 취한다. 그 때문에 逸脫行爲에 관한 分析은 「汚染(Contamination)」이라든가 「殘滓(Survival)」의 概念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逸脫的 行動의 근원을 낡은 社會秩序가 破壞된 연후에도 殘存하는 과거의 「殘滓」라고 가정하는 殘在理論 내지 문화지체론은 舊世代의 경우에는 적용될 지 모르겠으나 젊은 세대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기성의 老世代가 이 殘滓를 새로운 청소년 세대에게 전승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성립되어 이를 고집하는 경우 큰 難點을 스스로 內包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공산사회도 다른 社會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社會逸脫」의 要因이라고 할 지라도 그것은 共產體制的 社會的 環境에서 연유한 產物이며 이런 면에서 社會的 逸脫現象은 하나의 超體制的 現象인 것이다.

最近 北韓社會에서는 各種 類型의 社會犯罪가 발생하고 있음이 귀순자의 증언이나 각종 첩보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며 특히 전후세대인 북한청소년의 非行은 날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우상화를 위한 「共產主義的 人間」을 조형하는 강력한 政治社會化와 體制維持를 위한 각종 統制에도 불구하고 最近 北韓의 전후세대들 사이에는 思想的 해이와 體制的 불만意識이 팽배해 가

고 있다. 「김일성교시」 학습 기피현상, 각종 組織生活에 대한 外面, 社會的 不滿과 逸脫的 行動(절도, 소매치기, 강도, 집단폭력, 강간살인, 불량씨클조직, 불온낙서행위 등)이 그 대표적 實例들이다.

北韓 靑少年들의 集團的 社會逸脫現象은 塔아소에서 젓먹이 때부터 실시된 思想教育의 不渡現象을 의미하는 것이며, 北韓의 어린이들이 統治者의 意圖대로 이른바 “主體型的 共產主義 革命鬪士”로만 造就되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靑少年들의 集團逸脫現象은 出身成分에 따라 上級學校進學과 社會進出方向이 결정되는데 따른 過半數 靑少年들의 좌절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作用하고 있어 심각한 체계적 모순이 낳은 社會문제가 되고 있다.

나. 社會的 不條理現象

社會的 不條理現象 또한 北韓의 社會體制的 性格을 그대로 反映한다. 따라서 北韓社會가 지닌 社會的 不條理의 特性을 社會的 脈絡 속에서 규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北韓의 境遇, 그동안 그들이 採擇한 政策方向이라든가 黨內的 政策決定 과정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當面한 反社會主義的이고 反社會的인 諸問題點에 대해 단편적이나마 繼續的으로 지적해 왔다. 1973年 「黨證再交付事業」 1975年의 「工業熟成者大會」, 1977年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 1979年 9月 「제1회 전국노동행정일군대회」, 「80年 10月 黨六次大會에서의 社會安全部 部長 李鎭洙 토론」 등에서 그들의 당면과업을 강조하는 가운데서 지적된 社會적 부조리의 양상들은 그 代表的 實例라 하겠다.

이러한 事例에서 北韓이 처한 社會的 不條理와 不安定의 素地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金日成 敎示 학습에 대한 기피
- ② 黨 組織生活의 怠慢 및 外面
- ③ 黨員과 勤勞者의 소극성 및 熱成의 不足
- ④ 뇌물과 증수회 만능풍조
- ⑤ 努力과 原資材浪費
- ⑥ 노동협오와 노동기피, 그리고 勞動規律의 違反
- ⑦ 國家財産의 消費와 流用, 그리고 財産 濫用
- ⑧ 技術神秘主義, 保守主義, 經驗主義, 修正主義, 資本主義 思想, 封建儒敎思想 등 「낡은 사상잔재」의 持續
- ⑨ 官僚主義, 主觀主義, 要領主義, 形式主義 事業作風
- ⑩ 청년인텔리의 反社會主義的 行動과 인간소외등의 현상이 그것이다.

북괴 스스로가 提示한 이상의 諸現象은 오늘날 北韓社會의 저변을 흐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의 內面的 社會意識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지나친 統制와 人權不在現象 그리고 黨權萬能이 빚어낸 社會不安의 근원으로서 社會의 各界 各層에 깊이 作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北韓은 이와 같은 不條理를 저지른 주민과오자중 정치범 및 중범자를 제외한 경범자에 대해서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지방별 重勞動 職場에 배치(유배)하여 일정기간 무보수노동을 시키고 있다.

北韓에서는 本人의 希望이나 適性を 無視한 채 일방적으로 職場

配置를 하고 있기 때문에 不平不滿이 많으며, 이로 말미암은 각종 不條理와 怠業등 勞動棄避現象이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北韓에서는 靑少年과 제대군인들이 職場配置에 불만을 품고 職場離脫과 노동기피등 사소한 怠業에 대해서도 엄벌주의를 擇하게 되었고 最近에는 이같은 怠業現象에 대해서도 「生産暗害間諜行爲」로 규정하고 주거지나 직장부근에서 軍중재판에 회부 공개총살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공개총살이라는 示範을 보이는 것으로써 怠業現象의 繼續的 波及을 막자는 의도이다.

다. 社會相 풍자한 은어만연

이와 같은 주민들의 內的 不滿要因이 팽배한 가운데 최근 北韓社會에서는 金日成父子的 사치등 不條理한 社會相과 不信風潮를 풍자한 은어가 날로 성행하고 있다. (도표 25 參照)

現在 北韓에서 유행하는 「人民通信手段」(은어)들은 대부분 일반 주민들의 生活苦와 金日成父子的 사치와 향락, 그리고 黨·政幹部들의 횡포를 야유 또는 풍자한 것들인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內外通信, 83.10.5)

「빠닥세」는 당간부나 행정기관 간부들을 멸시하는 말로서 현재 北韓에서 가장 널리 유행되고 있는 은어이고, 「사람과의 사업」의 본뜻이. 종래에는 선전선동사업이었으나, 지금은 男女間의 연애나 정사관계등을 가리키고 있다고 한다. 또 「늑대」는 당비서를 빗정대는 말로서 주로 여자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고 「냄새배급」은 특

권층의 결혼식 피로연을 비꼰 말로서 일반주민의 결혼식은 온갖 계약을 가하면서 특권층은 호화스런 결혼식에 피로연까지 진수성찬으로 하고 있어 일반주민은 그 냄새를 맡아야 한다는데서 생겨난 말이다.

「돈수대근탕(豚水大根蕩)」은 고기는 한점없이 돼지국물에 무우를 띄운 국을 빈정대서 하는 말로서 대학의 기숙사 또는 北僞軍內에서 주로 유행하고 있고, 「1등인민」은 북송된 재일교포들의 옷차림을 보고 北韓 靑少年들의 지어준 별칭이며, 「2등인민」은 소련에서 돌아온 자들을 일컫는다고 한다.

이 밖에 「주먹치기」란 官僚主義에 타성이 났을 사람이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며 설치는 소위 핵심분자를 가리키고, 「콩사탕」은 공산당이란 말의 발음을 변형시켜 만들어 낸 말이다.

北僞의 강제적인 결혼연령 제한정책등으로 문란해진 性風土를 풍자한 「짜바카동무」(개를 뜻하는 러시아어로 음란한 男女), 「오락행위」(밤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벌어지는 男女의 情事를 일컫음), 「해방처녀」(미혼모나 결혼전에 男女關係가 있는 처녀) 등도 크게 유행되고 있는 은어이다.

<表 25 >

北韓住民들의 은어 實例

은어	區分	指 稱 對 象	備 考
너구리		김일성	
김마두		"	마적두목
김인백동무		"	인백 : 인간백정
김피내동무		"	피내 : 피비린내
산돼지		"	
새쓰게		"	미치광이란 의미
양다리동무		"	중·소분쟁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말
번지없는 주막		김일성 주석궁	김일성의 집은 번지가 없는 데서 나온말
약방에 감초		김일성 교시	어디에나 인용되는데서 나온 말
자막대기		3 대혁명 소조원	3 대혁명 소조원들이 30대 자를 가지고 다닌데서 나온 말
개동같은 노는동무		부하들을 못살게 피롭히는 상사	
절단기		상사들이 여자관계로 인해 처단되는 경우	
햇내기		김정일	

은어 區分	指稱對象	備考
용광로 쇠기박기 체조받기 물어먹기	숙청	고자질 잘하는 “아침쟁이” 를 요소요소에 박아놓고 불평불만자를 색출하는데서 나온말 “쇠기박기”에 의해 고자질 당한자가 비밀호출되어 문 초받는 것 자신의 출세를 위해 친지· 동료들 포함하는 행위

라. 社會問題의 內在的 要因

이상과 같이 北韓社會 내에는 각종의 靑少年非行, 犯罪, 不條理, 不信風潮, 反社會主義的 思想 등 제반 社會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다. 이는 결국 그 동안 극한적 閉鎖와 극단적 統制 밑에 潛在해 있는 여러가지 體制的 矛盾과 社會的 葛藤이 對內外的 條件變化에 따라 점차 顯在化한데 기인된 것이다.

이러한 現實的 狀況에서 오늘날 北韓社會가 당면하고 있는 各種 社會問題에 대해서 보다 經驗的이고 客觀的 立場에서 그 原因을 밝혀보면, 우리는 北韓社會가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理想的인 共產主義 理論과 얼마나 빗나가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

즉 階層別에 다른 社會的 不平等 現象, 統制된 集團組織生活, 그리고 外來文化와의 접촉에 따른 北韓住民의 心理的 배타성 파괴 및 體制의 變質 야기 등이 北韓 住民들의 反社會主義的인 逸脫行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볼 때, 오늘날 북한사회에서는 社會的 統合성을 弱화시키고 反社會主義的이고 反體制的인 逸脫行爲를 유발할 수 있는 社會構造的인 要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고도로 組織化된 住民統制와 철저한 監視制度, 그리고 金日成 唯一思想이 北韓住民에게 연속적이고 강압적으로 注入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로서 北韓에 反社會主義的 내지는 反體制的인 逸脫行爲가 표면적으로 크게 발생한다는 것은 아직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6 . 結 論

分斷의 長期化에 따라 國土의 兩斷은 이제 地理的인 南과 北의 分斷이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 單一民族이라는 同質性이 破壞되는 심각한 단계에 와있다.

南北韓은 相互對立的인 이데올로기와 社會制度의 採擇으로 말미암아 각기 異質的인 文化가 形成되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同族이면서 서로 敵對化의 길을 걷고 있다.

이상과 같은 觀點에서 우리들은 社會體制의 構成原理와 그 體制維持裝置를 전혀 달리하는 南北韓間의 相異한 두 社會文化를 제한 基存資料의 制限된 범주내에서 比較하였던 것이다.

그 結果 南北韓間에는 分斷 38년이 경과한 지금 社會文化的으로 類似性보다는 特異性이, 同質性보다는 異質化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比較에서 발견된 몇가지 차이를 정리·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데올로기에 의한 體制維持 및 統合에 있어서, 韓國은 이데올로기의 構造가 복합적이며 全社會에 걸쳐 강력하게 작용하는 支配的인 이데올로기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반면, 北韓은 김일성 유일 사상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主義와 이데올로기만 존재할 뿐이며 이에 의해 社會의 모든 下位體系가 強力하게 統制되고 있다.

따라서 個人能率 指向的인 社會組織形態를 追求하는 韓國의 社會보다 集團能率의 向上을 추구하는 組織的 動員社會인 北韓社會가 이데올로기의 社會統合機能은 더 強力하다.

둘째, 南北韓間에 이데올로기에 의한 社會統合의 정도는 各各의 社會化過程과 무관하지 않다.

즉 北韓은 社會化 問題를 體制維持의 核心的 課題로 다루어 政治的 社會化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 과정의 連續성과 一貫성이 비교적 높아 體制統合 및 維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反面, 韓國은 社會化를 “自然的” 過程으로 간주해와 개인과 國家間的 連繫關係를 강화하는 方向으로 社會化手段을 발전시켜 나갈 必要性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社會管理方式에 있어서 韓國은 개인의 創意성과 自律을 바탕으로 社會生活를 영위하는 것을 基本原理로 하고 國家統制는 단지 調整·補完·修正의인 役割만 수행하게 된다. 반면 北韓은 一元的인 中央統制에 의해 모든 住民을 政治組織에 예속시켜 개인의 自由가 구속되는 集團의 生活를 누리고 있다.

넷째, 가정생활에 있어서 韓國은 자녀에게 人間다운 정서를 배양시켜 건전한 人格을 갖춘 生産的인 社會人的 양성을 추구하는 反面, 北韓은 가정 不在의 狀態下에서 學校와 社會團體에 의한 社會主義的 教育方法을 동원하여 共產主義的 人間形成에 주력하고 있다.

다섯째, 文化活動에 있어서도 北韓은 文學, 藝術, 言語 및 言論 등을 體制維持 手段으로서 活用하고 있으며 客觀性·藝術性을 부인하고 革命성과 鬪爭性을 강조한다.

여섯째, 保健醫療·社會保障 등의 社會福祉面에 있어서 韓國은 現在까지 만족할만한 投資水準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第5共和國의 출범과 함께 正義로운 福祉國家 建設이라는 目標아래 社會開發部門에 本格的으로 投資함으로써 國民生活의 福祉向上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北韓은 社會保障制度가 體制存立의 명분적 구실인 까닭에 일찌기 이에대한 法的 基盤을 마련, 體制優位 宣傳에 活用해 왔으나 아직도 먹는 問題와 입는 問題도 解決하지 못한 형편에서 社會保障制度는 그 실질적 具現이 요원한 단계에 있다.

실질적인 社會保障制度의 實現은 南北韓 공히 社會保障에 관한 법적 제도를 뒷받침할만한 物量的인 經濟力과 그 投資의 우선순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社會變動과 관련하여 南北韓社會는 다같이 體制的 特性에 反應하는 諸社會問題가 제기되고 있다. 즉 南北韓社會에 있어서 犯罪, 非行, 社會的 不條理 등 社會逸脫 現象은 社會的 긴장과 심리적 불만을 야기함으로써 양측 다같이 社會文化的 再組織化를 유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相異點과 類似點을 전제로 평가해 볼 때, 北韓은 統治이데올로기에 의한 社會統合, 강력한 政治社會化 그리고 勞動力의 動員組織 등의 면에서는 全體主義的 劃一社會가 가지는 強點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앞으로 김일성체제의 허구성과 「自力更生」의 限界로 인해 기술도입등 점차 문호개방에의 壓力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偶像化 조작과 정치적 統制로 말미암은 주민간의 體制的 不滿과 戰後世代들의 脫革命化 징조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體制內在的 제반 모순과 문제점들이 앞으로 北韓 共產主義體制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韓國은 人的 및 物的 資源, 技術水準 등 經濟力에 있어 北韓을 훨씬 앞질러 있어 體制管理 遂行能力이 배양되고 있다. 다만 급속한 社會變動 過程에서 수반되는 價値體系의 混亂, 社會文化

的 隔差, 社會的 逸脫 및 不條理 등 社會安定을 저해하는 要素들
을 除去함과 동시에 여러 部門들간의 調和와 調整의 問題가 앞으
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상응하여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南北韓間의 社
會 文化的 異質化와 동시에 그 力量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時點에서 民族의 同質性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선차
적으로 社會 文化分野에 있어서의 南北韓間 交流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